



## 넓은 세상 가까운 인연

우리 소셜웹에서 만나요  
**social.incheon.go.kr**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를 한 번에  
 인천광역시가 SNS 통합 소셜웹을 서비스합니다.  
 이제, 인천이 세상 모두와 가까이 접속합니다.



##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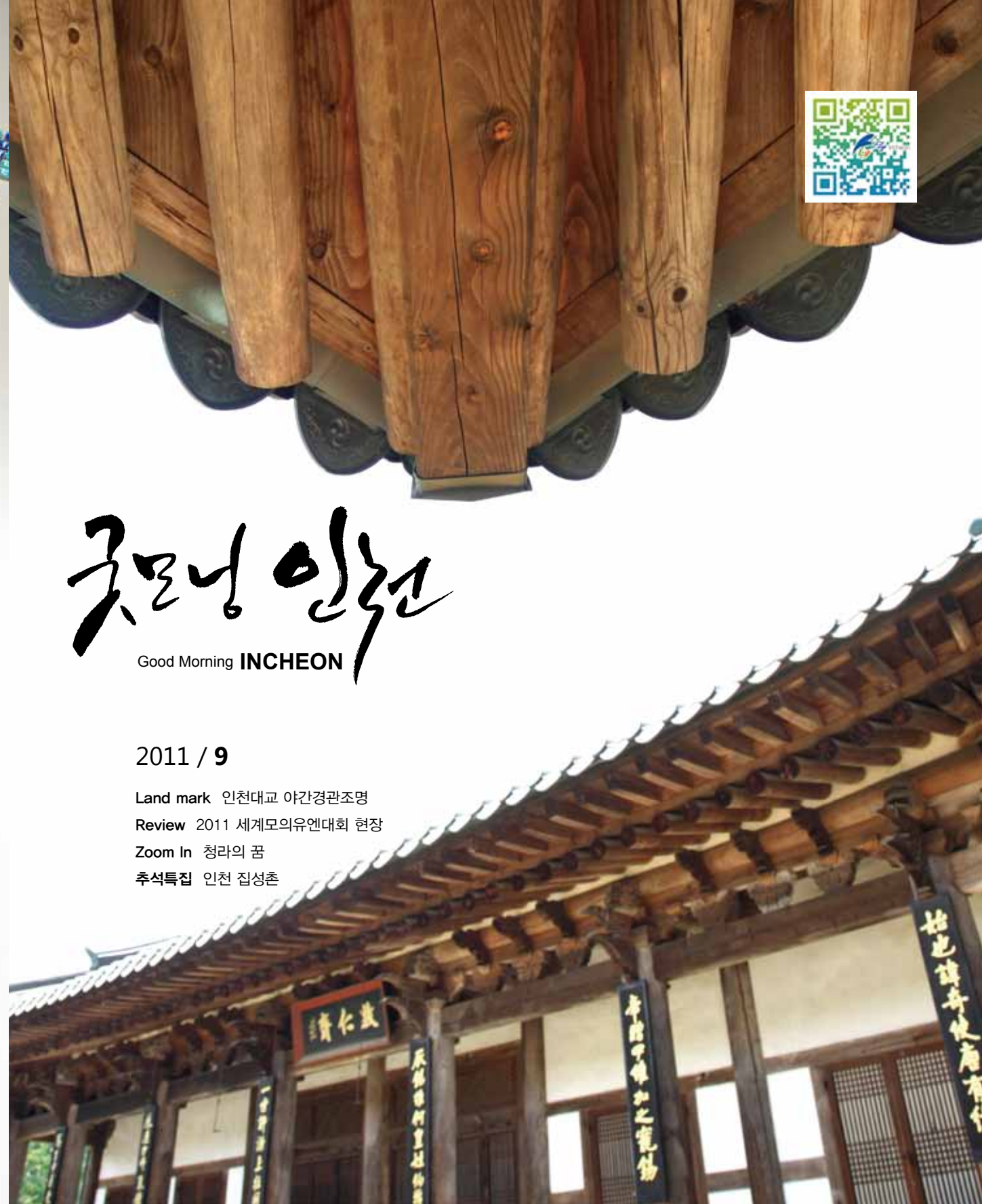
2011 / 9

Land mark 인천대교 야간경관조명

Review 2011 세계모의유엔대회 현장

Zoom In 청라의 꿈

추석특집 인천 집성촌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1년 9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대변인 윤관석
편집장	유동현(뉴미디어팀장) <a href="https://twitter.com/inhappyou">twitter.com/inhappyou</a>
취 재	편집위원 이윤남 <a href="https://twitter.com/yona1488">twitter.com/yona1488</a> 편집위원 정경숙 <a href="https://twitter.com/bluelou7">twitter.com/bluelou7</a> 편집위원 김윤경 <a href="https://twitter.com/ice3333">twitter.com/ice3333</a>
사 진	김보섭 · 김성환 · 홍승훈(자유사진가) 심영보 · 하장원(시 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지사인	코인뱅크 T. 032-831-2336
인 쇄	브레인포스 T. 032-423-1988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http://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Cover Story

## 원인재(源仁齋)

전통가옥의 특징은 '난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과 땅이, 지붕과 바닥이, 문(門)과 문(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면 상대가 옷투이 보이고, 원할 한 소통도 가능합니다. 끝이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도 특징이지요. 전통 가옥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음 자세를 새로이 가져봅니다.

원인재(源仁齋) - 인천광역시문화재자료 제5호,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인천이씨의 중시조인 이허겸의 묘려(墓閭)



03	Communication	소통과 화합	38	사람과 사람	윤학원, 인상희
06	Land mark	인천대교 야간경관조명	42	책 읽는 인천	
08	Review	2011 세계모의유엔대회 현장	44	별난 물건, 별난 역사	경인선
14	Zoom In	청라의 꿈 ① 개발 청사진	46	Civic News	시정뉴스
16		② 청라달튼외국인학교	49	Council News	의정뉴스
18	Healthy Incheon	인천 천일염	52	Infobox	생활정보
22	추석특집	인천 집성촌	56	Spot the Difference	다른 그림 찾기
26	Vision	인천전문학교 스리쿠션	57	Reader's Photo	김치찰칫
28	Old But New	만석동	58	외국인 칼럼	근로자 낮타웃 속 무안반
34	Culture News	문화뉴스, 이달의 공연전시			

**08**      **Review | 2011 세계모의유엔대회 현장**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렸다**  
 '2011 세계모의유엔대회(Global Model UN Conference · GMUN)'가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 세계 대학생 480명이 모인 가운데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그 의미 있는 현장을 들여다본다.

# 14

## Zoom In | 청라의 꿈

### ‘한국판 베니스’... 물길 만든다

물의 도시 베니스처럼 유유히자한 아름다운 물길에 흐르고 곤돌라와 수상버스를 타고 낭만과 자유를 만끽하는 시민들. 세계적인 국제금융도시의 허브로, 복합 비즈니스가 가능한 자족도시로 도약을 꿈꾼다.

24 Old But New | 만석동  
근대화와 산업화 겪으며 깊게 패인 주름

일제는 갯벌을 매우고 산업단지와 위락시설을 유지하면서 신천지의 꿈을 키웠다. 이로 인해 호랑이가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갯이부리(모도)는 강그리 파헤쳐져 지도 속에서 사라졌다.

## 소통과 화합 communication

###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인천시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enews.incheon.go.kr)  
블로그(blog.naver.com/flyic)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www.facebook.com/visionincheon)을 통해 인천과 만나세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라면, 쓰든 달든 언제나 환영합니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 인천에 이렇게 멋진 호텔이 많다니

여름이면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 좀 편히 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굿모닝인천> 8월호에 실린 '인천호텔에서 여름나기' 기사를 보니, 이거다 싶네요. 도로가 막힐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바가지 쓰지 않아 불필요한 낭비도 없고, 몸도 마음도 즐겁고 여유롭게 충전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인천에 그렇게 멋진 호텔이 많는지 미처 몰랐는데 덕분에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다음 호도 기대할게요.

\_ 김지은 남구 주안1동

### 부산에서 띄우는 편지

인천은 왠지 마음으로 가까운 도시입니다. 저 역시 바다의 도시에 살고 있고 또 같은 광역시잖아요. 인천에는 즐기기에 좋은 섬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너무 멀리 살아서 쉽게 가기는 어렵네요. 남해에서 동해로 연젠가는 꼭 가보리라 다짐해 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반가워요. 아, 그리고 저는 <굿모닝인천>에서 '사소한 발견'이 가장 좋아요. 어느 곳에서 살 건 사람의 감성은 똑같나봐요.

\_ 김미라 부산시 동래구

### 인천사람의 인천알기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고향에 대한 지식은 백지 수준입니다.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보게 된 <굿모닝인천>이 인천에 대한 이야기와 정보를 알려 주어 고맙습니다. 시정소식부터 행사, 여행, 문화 정보까지 어느 하나 뺄 게 없네요. 특히 8월호에서는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음악의 바다에 풍덩 몸을 던지고 싶네요. 모두 건강하세요.

\_ 서은영 연수구 동춘2동

### 보석 같은 섬, 강화도

요 근래 아이들과 함께 강화도에 다녀왔습니다. 가면 항상 생각을 깊이 되새기게 되는 역사의 섬 강화도. 인천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섬에 볼거리가 더 많아진것 같습니다. 고인돌이 있던 어느 외진 마을, 그 안에 호젓이 자리 잡은 초등학교가 시간이 지난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름은 대월초등학교, 아기자기하면서도 이국적인 정취였습니다. 이처럼 강화도에는 보석 같은 풍경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 가을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나들이 가는 거 어떠세요?

\_ 박보경 계양구 하야동

### 인천이 한 권의 책에 쏙~

인천에 올 1월에 이사 왔는데 <굿모닝인천>을 이제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이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가 가득하네요. 인천을 알아가는데 훌륭한 안내자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인천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수고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기대할게요.

\_ 최현주 부평구 산곡3동

### 우리 꽃길 만들기에 동참해요!

달이 바뀔 때마다 기대를 안고 받아보는 <굿모닝인천>. 책을 읽으며 저의 꿈도 함께 자랍니다. <굿모닝인천> 독자여러분 가을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고향 가는 길에 만겨주는 코스모스를 먼저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인천기계공고 앞길 수벽에 코스모스 모종을 심었더니 어느새 예쁘게 자랐습니다. 큰 길가에 꽃을 가꾸면 더 아름다운 인천이 되겠지요? 여러분도 집 가까이에 꽃을 가꾸 보는 것 어떠세요?

\_ 김종진 남구 주안2동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부평과 계양을 잇는 서부간선수로 공사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시는 삼산동~서운동까지 약 3.5km구간에 대해서 '서부간선수로 친수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향후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9월 착공 후 오는 2012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bulloger **논현동 홈플러스 앞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불법주차도 많고요.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신호체계 변경은 경찰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인근지역에 2개소의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22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병행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bulloger **시장님! 여기는 관교여중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잡초가 무성하고 보도블록이 엉망이네요.**

최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보도블록 파손으로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파손된 보도블록은 남구청 건설과에 통보해 긴급 보수할 예정이며, 도로변 잡초는 관교동 주민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지속적으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김은혜(당시 만 5세, 여)  
발생일자 1997년 5월 26일(월)  
발생장소 남구 용현동  
신체특징 검정색 단발머리, 콧등에 점이 있음.  
제보처 보건복지부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 무채색 밤바다 오색영롱한 빛에 덮이다

어둠이 내린 바다 한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기나 긴 다리가 윤곽을 드러낸다.  
순백으로 은은히 빛나던 인천대교가 화려한 조명의 옷으로 갈아 입었다.  
밤의 적막을 깨고 찬란히 비추는 불빛에 바다는 황홀경에 빠졌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심기준 경제자유구역청

밤의 적막을 깨고 인천대교가 장대한 위용을 드러낸다. 거대한 용이 금방이라도 하늘을 날 듯한 모습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사장교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긴 다리'라는 말이 실로 느껴진다. 태양 아래 감춰졌던 바다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어둠 속 깊이 잠들어 파도만이 넘실거리는 바다에 찬란히 부서지는 불빛은 보는 이를 황홀경으로 이끈다.

지난달 10일 세계와 우리나라를 잇는 바닷길 인천대교에 화려한 조명이 켜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비 32억원을 들여 인천대교 중심부 3.3km 구간에 형형색색의 조명 800여 개를 새로 달았다. 이번 사업으로 백색 등 30여 개가 있던 사장교에 색이 있는 등 200여 개를 추가로 달았고, 접속교 구간에는 바다를 상징하는 물결무늬 조명 600여 개를 설치했다.

인천대교 바다구간, 달리던 자동차의 속도를 조금 줄인다. 붙어졌다가 푸르게 다시 노랗게... 주탑을 비추는 조명이 시시각각 색을 바꾸며 꿈결인 듯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저 멀리에는 휘황찬 빛나는 송도국제도시가 물 위에 잠기듯 신비롭게 떠 있다. 쏟아지는 불빛 아래서 달리는 21.38km, 마치 현실에는 없는 빛의 터널을 건너는 듯하다.

빛으로 다시 태어난 인천대교는 하늘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진가를 더 한다. 비행기 창으로 내려다보는 인천대교는 런던의 타워 브리지 혹은 시드니의 하버브리지가 그렇듯, 이 땅을 찾는 사람들의 가슴에 강렬한 느낌표를 찍으며 첫 인사를 건넬 것이다.

검푸른 어둠 속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바다. 그 안에 인천대교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며 희망 찬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 | 인천대교 야간경관조명 사업 |

인천대교 야간경관조명은 매일 일몰 시각에 켜져 네 시간 동안 바다를 비춘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일곱 가지 색깔로 변하며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사업구간 : 인천대교 해상구간 3.26km(사장교 컬러체인저 1.48km, 접속교 투광기 1.78km)

사업기간 : 2009년 8월~2011년 10월

시행사 : 인천광역시, 인천대교(주)





##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렸다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이 인천에 모여 희망 찬 미래를 설계했다. 우리시와 유엔본부가 주최한 '2011 세계 모의유엔대회(Global Model UN Conference · GMUN)'가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 세계 대학생 480명이 모인 가운데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그 의미 있는 현장을 들여다본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심영보 시 대변인실, 김성환 · 홍승훈 자유사진가





### 인천에서 세계의 미래를 논하다

“2011 세계모의유엔회의(Global Model UN Conference · GMUN)는 세계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평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다. 이 시간을 통해 국제사회의 현안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양을 키우길 바란다.” 송영길 시장은 모의유엔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인천을 찾은 젊은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2011 세계모의유엔회의가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자연과 조화로운 인류 발전’을 주제로 열렸다. 우리시와 유엔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61개국 대학생 480명과 초청인사 200여 명, 인천지역 고교생 참관단 400여 명, 내외신기자단 100여 명 등 모두 1천200여 명이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국제사회의 현안을 깊이 논의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했다.

### 젊은 그들에게서 희망을 보다

“여러 정부가 환경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제적인 의미의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은 개발을 하면서 자국의 환경도 지켜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계모의유엔회의의 회의가 펼쳐지는 송도컨벤시아는 미래를 이어 갈 차세대 리더들의 열띤 토론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자연과 조화로운 인류 발전’을 주제로 군축 · 국제안보, 경제 · 재정, 사회 · 인도 · 문화, 특별정치 · 반식민 등 4개 분과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학생들은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최적의 합의안을 끌어 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거침없는 열정을 통해 장밋빛으로 빛나는 우리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의 대학생들은 출신 국가와 상관 없이 의장단에서 배정한 국가의 명패를 놓고 저마다 주제를 발표했다.







###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밝다

이번 대회는 특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기조연설과 특별강연을 해 큰 관심을 모았다. 대회를 시작한 첫날 반 총장은 “한 나라의 문제가 국경을 넘나들고 세계적인 파급력을 갖는 오늘, 빈곤을 없애고 세계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두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젊은이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행로가 달라진다. 함께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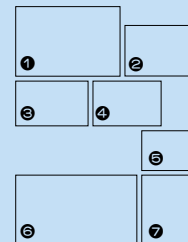
송 시장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장에게 듣는다-글로벌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강연하며 그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했다. 송 시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인천의 개항사와 상륙작전을 통한 UN과의 인연을 소개하고 평화의 전진기지를 지향하는 인천의 비전을 소개했다. 더불어 “회의를 통해 글로벌 시대가 당면한 도전과제와 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국제사회의 위기를 인식하고, 정의와 용기를 갖춘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길 바란다”며 용기를 북돋웠다.

인천에서 열린 2011 세계모의유엔대회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희망찬 내일을 일구는 젊은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밝다.

#### about GMUN

####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 모여, 세계발전 도모

세계모의유엔회의는 전 세계 대학생이 모여 분쟁, 빈곤, 인권, 환경, 발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며 협의안을 도출하는 국제적인 행사다. 참가자들은 유엔의 의사규칙에 따라 연설과 토론을 벌이며 차세대 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쌓는다. 세계모의유엔회의는 지난 200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해 다음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인천에서 열렸다. 2011년 인천대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자연과 조화로운 인류발전’을 주제로 전 세계 61개국 480명의 학생들이 모여 열린 논의를 펼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① ② 세계에서 모인 젊은이들은 글로벌빌리지를 통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를 이해했다. ③ 61개국 대학생 40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특히 저개발국과 분쟁국의 대학생들이 특별초청돼 의미를 더 했다. ④ ⑤ 인천대회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기조연설과 특별강연을 해 관심을 모았다. 송영길 시장도 특별강연으로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었다. ⑥ 우리시는 시티투어를 통해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인천의 전통과 국제도시로 거듭난 현재의 발전상 그리고 비전을 알렸다.







## ‘한국판 베니스’ ... 물길 만든다

물의 도시 베니스처럼 유유자적한 아름다운 물길이 흐르고 곤돌라와 수상버스를 타고 낭만과 여유를 만끽하는 시민들, 세계적인 국제금융도시의 허브로 외국인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관광·스포츠·레저단지가 조성돼 복합 비즈니스가 가능한 자족도시로 도약을 꿈꾼다. 청라경제자유구역이 그리는 장밋빛 미래 청사진이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 곤돌라, 수상버스로 이국적 분위기 연출

청라경제자유구역은 홍콩과 같은 금융허브, 관광·레저·스포츠, 로봇랜드, 골프장, 외국인학교 등 굵직한 개발사업을 근간으로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움직이는 또다른 중심축이다. 위치는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원으로 1만7천779㎡ 규모다. 기반사업은 2012년 완료를 목표로 한다.

청라경제자유구역은 처음 개발계획과 달리 진척이 더딘 측면이 있지만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선 청라 IHP(인천 Hi-Tech-Park)사업이 속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대기업 유치의 길을 열었다. 청라지구로 들어오는 국내 대기업에 세제혜택을 주어 국내의 기업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업종은 자동차, 신소재, IT, 로봇 관련 R&D 및 제조업이다. IHP사업은 2012년 착공에 들어간다.

국제금융의 허브답게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업무

타운을 조성한다. 외국인 투자업무를 위한 오피스텔 조성은 물론 관광, 휴양, 쇼핑, 문화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이다.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베어즈베스트 청라골프장’은 9월 시범라운딩을 거쳐 내년초 정식 개장한다. 1천492㎡규모로 27홀의 대중골프장이다. 청라골프빌리지의 가장 큰 자량은 골프코스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3개 유형의 골프코스가 9개홀씩 준비된다. ‘골프의 제왕’으로 불리는 잭 니클라우스가 직접 설계했다.

청라는 물의 도시답게 도시를 관통하는 물길이 만들어져 이국적 운치를 더 한다. 청라를 흐르는 공촌천과 심곡천에다 바다를 연결한 물의 도시 컨셉의 하이라이트는 주운시설이다.

가로 폭이 10m, 수심이 1~1.5m의 물길이다. 주운시설의 길이는 동서 3km, 남북 1.5km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동서수로에는 곤돌라와 수상버스가 다니고, 남북수로는 중앙호수공원과 연결돼 아름답고 정감있는 수변공간을 연출한다.

### 시티타워 랜드마크이자 관문역할

중앙호수공원은 69만3천㎡ 규모로 올 하반기 공사를 착공한다. 중앙호수공원 가운데에 작은 섬을 마련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시티타워 사업도 올해말 사업자를 결정한다. 시티타워 예상높이는 450m로 청라의 랜드마크이자 인천의 관문역할을 한다. 타워는 전망대와 복합레저 단지로 조성해 인천공항 이용자들의 쇼핑과 휴식공간으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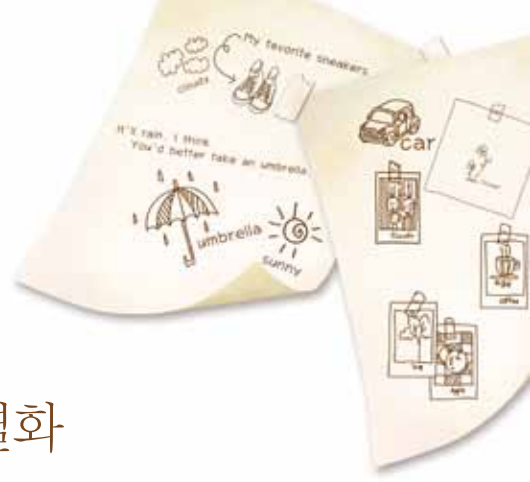
청라의 계획 인구는 9만명. 3만3천210세대가 입주하는 규모다. 사업이 끝난 청라1공구의 전체 세대는 6천4백세대, 현재 4천5백세대가 들어와 입주율이 70%에 달한다.

청라에 입주한 시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은 시급한 과제다. 청라로 들어오는 차량의 편의를 위해 검암IC가 2013년 상반기에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고, 공항철도 이용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청라역이 내년말 개통한다. 신교통 체계도 마련된다. 바이-모델트램은 1단계로 청라역~가정오거리역, 2단계로 청라지구~석남역을 연결해 현재 불편한 대중교통 해소에 기여한다. 청라~강서를 잇는 BRT도 신설한다. 총 23.1km로 인천, 부천, 서울을 이어 수도권 출퇴근자의 교통편의를 돕는다.

청라를 관통하는 물길 주운시설. 현재는 공사 중이지만 완공되면 곤돌라, 수상버스가 다녀 새로운 볼거리를 연출할 것이다.







## Cheongna Dalton School

### ‘핀란드식 수업’에 커리큘럼 차별화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청라의 외국인학교인 달튼스쿨이 9월 1일 개교했다. 올해는 K~9학년까지 모집한다. 8월 현재 100여 명의 학생이 입학한 상태다. 청라 달튼스쿨은 외국인학교이지만 국내학력이 인정된다. 다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국내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졸업 후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국내학력인정을 받으려면 주당 3시간씩 1년간 국어, 사회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입학자격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내국인의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1천95일 이상 되어야 한다. 해외거주 3년의 조건을 충족해야 입학할 수 있다. 한 반은 수업의 효율성을 고려 12~15명정이다.

청라달튼스쿨은 커리큘럼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수업시간이 75분이고, 미국식 이동수업을 실시한다. 핀란드식 5학기제로 운영하며 학생들 스스로 과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자기주도식 방법인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수업방식은 학습효과가 높고, 학생들 스스로 해결능력과 협업심을 기르며 리뷰가 가능하다. 학비는 초등학교 1천5백만원, 중학교 1천8백만원, 고등학교 1천9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청라달튼스쿨은 바다와 운하, 자연녹지인 골프장으로 둘러싸인 4만6천200㎡ 대지 위에 초·중·고 교



청라달튼스쿨 학교시설, 친환경, 첨단을 자랑한다.

육과정을 운영하며 e러닝을 비롯한 최첨단 교육과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학생들이 가장 편하고 자유롭게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동선을 없애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친환경 목재를 사용하고 건물에 최대한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첨단 IT 교실을 구현했다. 스마트 보드, 노트북 등을 이용한 종이없는 교실, 빔프로젝트 등을 설치했다. 다양한 방과후 활동지원을 위해 체육관, 승마장, 수영장, 천연잔디구장, 골프장, 콘서트홀, 피트니스센터 등을 갖추고 학생들의 예·체능 활동을 돕는다.

청라달튼스쿨의 특별한 교육활동은 ‘하우스(House)’제다. 각 학년별 소모임으로 학업고민, 선후배간의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진다. 하우스에는 모임을 지도할 담당교사가 지정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와 커뮤니티를 돕는다. 맨해튼 달튼스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제도다. 청라달튼스쿨은 학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기회와 역사교육을 함께 병행한다. 외국에서 오래살았던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우고, 함양할 수 있는 기회다.

달튼스쿨은 외국인교사와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한다. 외국인교사를 위한 기숙사는 미혼과 기혼자들로 구분해 제공하고, 학생들도 1인1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315개가 마련되어 있다. 기숙사 생활은 중·고등학생만 대상이다. 달튼스쿨의 교육목표는 글로벌인재양성이다. 세계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휴머니티를 겸비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다. 학교의 모토도 ‘Pioneer to Serve(남을 위해 봉사하고 교류하는 개척자)’다. 학교의 모토처럼 학교운영을 맡고 있는 봉덕학원은 청라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봉덕학원은 1980년대 동아건설에 매립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1960년대부터 70년까지 초창기 청라의 갯벌 매립에 참여했고, 지금도 외국인학교 개교로 사회에 봉사하고 실천하는 개척자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박철민 교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채드워인터내셔널에 이어 외국인학교가 처음 개교하는 데 그냥 외국인 학교가 아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학교발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 기다림 끝, 하얀 새 숨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소금밭 염전. 흐르지 않는 바닷물은 해와 싸우고 바람을 다독이며 비로소 새 숨을 얻는다. 인천에는 웅진군 북도면과 백령면에 귀하디 귀한 하얀 소금꽃이 핀다. 전 세계 소금 가운데 39%인 천일염 그 중에서도 단 2%뿐인 갯벌 천연염이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 기다림 끝에 맺은 하얀 보석

살다보면 삶이 버거울 때가 있다. 마음은 느리게 살고 싶는데 머릿속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몸은 하릴 없이 움직인다. 흐르지 않는 바닷물이 지나간 시간 해와 싸우고 바람과 손잡으며 새 숨을 얻는 소금밭. 시간이 멈춘 듯 그 호젓한 풍경은 잠시 숨을 고르고 발걸음을 느리게하라 가르친다.

염판에 바닷물을 채우고, 벌과 싸우고 바람을 다독이며 말리고, 물을 달래며 소금을 거두고, 염판과 창고를 오가며 창고에 그득히 쌓고, 간수를 빼고... 염부는 오래도록 손길을 주고 지나간 기다림을 견뎌야만 비로소 반투명한 육각형 결정들 꽃피울 수 있다. 이 귀하디 귀한 천일염은 바닷물에서 염화나트륨을 분리해 만드는 정제염이나 오랜 세월 건조해 미네랄 성분이 녹아 없어진 암염에 결코 비할 수 없다.



### 맑은 자연이 키운 다디단 맛

인천에는 중구 을왕동에 천일염 제조업체 두 곳이 있고 옹진군 북도면과 백령면에 염전이 한 곳씩 있다. 이들 염전의 면적은 총 1,51ha로 매년 430t 가량의 소금을 세상에 내놓고 있다.

특히 육지에서 뱃길로 224km, 서해 바다 끝에 홀로 핀 백령도에서 나는 소금은 맛이 다디달고 영양이 풍부하기로 이름 높다. 섬의 맑디맑은 기운으로 빚어내니 때묻은 육지에서 나는 소금과 어찌 견줄 수 있을까.

백령도에 염전이 처음 생긴 때는 15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해군 때 오성부원군 이항복이 백령도 소금을 황해도 제일로 치켜세우면서 염전을 만들고 소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특히 별 좋고 바람 좋은 가을리는 소금을 만드는 최적지로, 갈대가 무성한 이곳에서 나는 소금을 ‘갈염’이라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진촌리와 북포리 일대에 바닷물의 유입을 막고 백령호를 만들면서 더 이상 소금을 생산할 수 없게 됐다. 지금은 화동 입구에 자리 잡은 화동염전만이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백령도에 남은 마지막 염전에는 오십 평생을 염부로 살아 온 부부가 내리찍는 태양 아래서 소금을 긁어모으고 있으리라.



백령도의 마지막 소금밭인 '화동염전'

###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천소금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소금은 모두 2억 1천만톤으로 그 가운데 천일염은 39%를 차지한다. 이 중 37%에 이르는 호주와 멕시코산 소금은 바닷물을 염전에 가둔 후 일 이년에 한 번 거두기 때문에 영양성분이 거의 없다. 그렇지 않고 오랜 세월 바다의 기운을 그러모아 정성껏 거두는 갯벌 천일염은 세계에서 단 2%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 천일염은 바다의 천연 미네랄 성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맛이 좋아 그 가운데서도 으뜸이다.

이 귀한 소금은 안타깝게도 값싼 외국소금에 밀려 그동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우리시도 이에 발맞춰 지역 천일염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2013년까지 중구, 옹진에 있는 염전에 모두 30억원을 지원해 시설을 보완하고 판로를 개척할 방침이다.

적당한 햇살과 바람 여기에 정성스러운 손길과 오랜 기다림이 더해 멈추어 있던 바다는 새 숨을 얻는다. 그 하얗고 보드레한 결정체를 입에 담고 진리대로 느리게 흘러가는 자연을 음미해 본다.

### 바다의 도시, 인천 천일염이 최고

#### 백령도 천일염 고집하는, 송도파크호텔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송도파크호텔은 모든 요리에 백령도산 천일염을 넣어 정성스레 조리한다. 인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심 끝에 찾은 해답이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나라 천일염하면 전남 신안의 천일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인천에도 영양이 풍부하고 맛 좋은 천일염이 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바다의 도시 인천 그 안의 청정 섬에서 나는 갯벌 천일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송도파크호텔의 요리를 담당하는 박장원 조리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인천 천일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드의 천일염보다도 칼륨과 마그네슘이 두 배 가까이 풍부하게 스며 있다. 또한 천일염은 건강에도 좋지만 음식의 풍미를 돋우는 데도 그만이다. 저가의 외국산 소금은 맛이 텁텁하고 쓴맛이 나지만, 천일염은 짠 맛 속에 단 맛이 감돌아 음식 재료에 숨겨진 오묘하고 깊은 맛을 이끌어낸다. 송도파크호텔은 고온에서 구운 천일염에 강화숙, 강화인삼, 녹차, 백련초 등을 가미해 영양과 풍미를 최상으로 살리고 있다.

송도파크호텔 210-7000



송도파크호텔 박장원 조리장







# 朴

## 박촌엔 박씨 남촌엔 최씨 ‘모여’ 살았네

동네 이웃은 촌수를 따져 아저씨, 아주머니, 삼촌, 조카로 부르고, 함께 농사를 짓고 집안의 대소사가 있으면 온 마을이 나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내일처럼 거들어 준다. 혈연중심의 농경사회의 전통이 남아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내 옆 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현대인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다. 토박이보다는 일자리에 따라 거주지가 바뀌는 산업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수백 년간 이어 온 집성촌의 명맥이 끊어진 지 오래다. 계양구 박촌동 밀양박씨, 남동구 남촌동과 논현동 해주최씨는 인천에서 그나마 집성촌의 명맥을 잇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약 400여 년간 박촌동을 지켜온 밀양박씨

인천지하철 1호선을 타고 계양방면으로 가다보면 ‘박촌’이라는 역명을 만나게 된다. 한자의 뜻을 보지 않고선 그저 여느 역 이름처럼 스치기 쉽다. 박촌(朴村). 이름그대로 박씨들의 마을이다. 박씨들이 공기 좋고 물 맑은 이곳 계양구 박촌동에 뿌리를 내린 시기는 조선 현종때. 지금으로부터 약 4백여 년전이다. 박혁거세의 후손인 밀양박씨 중 충헌공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땅을 파고 살았다.

이곳에 정착한 밀양박씨 충헌공파에서 중시조로 모시는 분은 박강(綱)할아버지다. 그분의 후손들이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대에 퍼져 살았다. 박촌마을은 5,60년대만 해도 대촌(大村)이었다. 당시만해도 한 동네에 100호가 넘으면 큰 마을로 불렸다. 한강과 가까워 물이 흔했고 농토가 넓으며, 산이 많아 풍요로운 농촌마을이었던 이곳도 1970년대 우리사회의 도시화, 산업화의 길을 피할 순 없었다.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농토와 산은 자식들의 고등교육을 위해 하나둘씩 외지인들에게 팔려나갔고, 농사보다는 도시에서의 삶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점점 흩어지게 된다. 집성촌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면서 뿌리가 흔들렸다. 현재는 박촌동에 15가구, 병방동에 15가구 정도가 살고 있다. 박촌동은 인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아직도 농촌적인 향취를 풍긴다. 곳곳에 텃밭이 있고, 농사를 짓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띈다.

이곳 중증의 사무총장인 박진원(71) 어르신은 선친도 박촌동에 많은 땅과 산을 가지고 있는 지주였다. 해방후 농지개혁으로 많은 땅을 빼앗겼어도 전답과 산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어렸을 적 계양산을 놀이터 삼아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당시 이곳엔 노루와 토끼가 많았고, 개울엔 가재가 흔해 아이들의 놀이터로는 최고였다고 회고한다. 박진원 어르신에 의하면 예전엔 집안에 큰 잔치나 상을 당하게 되면 집안의 아낙들이 가서 큰일이 끝날 때까지 서로 돕는 미풍양속이 있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가 내일처럼 도왔고 결속도 잘 뒀다고 한다.

집성촌의 미풍양속은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박촌동은 박씨들의 근간이자 뿌리다. 대대로 일궈온 땅이있고 조상들이 뿌리깊이 박아놓은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조들의 전통과 맥이 지금 젊은세대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박촌동에 사는 밀양박씨 충헌공파 어르신들이 중증 사무실에 모였다.



# 산 住

## 논현동, 남촌동의 터줏대감 해주최씨

남동구 남촌동은 인천에선 뒤늦게 개발바람이 분 곳이다. 다른지역에 아파트나 빌딩들이 콕콕 들어설 때 벼 농사를 짓고, 과수원에서 배와 복숭아를 수확하며 풍년을 만끽했다. 인천에 남아있는 마지막 허파이자 오아시스였다.

남촌동도 90년대 초 풍림아파트 건설로 개발이라는 거대한 기류에 휩싸인다. 누대로 땅을 갖고 농사를 지었던 최씨들도 땅이 개발지역에 수용되자 보상을 받고 하나둘 떠나게 된다. 남촌동도 이때 개발이라는 막차를 탄다. 이곳에 300년 넘게 살아오면서 터줏대감 역할을 해오던 해주최씨 집성촌도 1990년 대 남촌동 일대 개발로 뿔뿔이 흩어진 것이다. 현재는 17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남촌동에 살던 해주최씨(전한공파)는 1950~60년대 만해도 70~80세대가 살았다. 벼농사, 밭농사,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씨족들이 서로를 돕는 인심좋은 동네였다.

당시만 해도 남촌동 주변엔 갯벌과 염전이 있었다. 최씨들은 생업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부업으로는 소금을 구워서 서울 등 외지로 팔러 다녔다.

이웃집은 아저씨네, 뒷집은 큰아버지네, 아랫집은 장조카네 등 모두가 한 가족이었다. 잔치가 열리면 마당에 튼튼한 무명천을 세우고 명석을 깔아 2~3일씩 잔치를 열곤 했다. 한집에서 잔치가 열리면 아낙들이 모여 잔치상을 차리고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모여 결속과 번영을 다졌다. 어르신의 생일엔 집안어른 40~50명이 한자리에 모여 아침과 점심을 같이 했고, 제사가 있는 날은 상을 차려 밥 한 끼라도 같이 나눠먹었다. 잔치 하고 남은 음식은 떡 한 쪽, 고기 한 점이라도



해주최씨 판사복씨공파 최일섭 회장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7,80여 년 전 붓으로 직접 그린 논현동 일대 지도를 보고 있다.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줬다.

남촌동 최씨 집성촌에는 음력 7월 1일 당제때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마을사람들과 나눠먹던 풍습이 아직도 전해오고 있다. 집집마다 돈을 추렴해서 잡은 소를 같이 나눠먹으면서 마을의 안위와 번영을 빌었고, 더위에 허약해진 몸을 보하는 영양 보충의 의미를 담고 있다. 농번기 전에는 도림동 남호정에서 매년 활쏘기대회도 가졌다.

해주최씨 전한공파 종중에서 총무일을 보고 있는 최정언(73) 어르신은 옛날 조상들은 이곳에 농지가 적어 어렵게 사셨다는 말을 어릴적에 들었는데 조상들이 열심히 일한 덕을 후손들이 보고 있다고 말한다. 논현동에 터를 닦은 해주최씨(판사복씨공파)도 500년 가량 집성촌을 이뤄 살았다. 50~60년대에는 70여 가구가 살았다. 이들도 1990년대 말 논현동이 개발되면서 집단이주의 경로를 밟았다. 주변에 묻혀있던 조상묘도 화장해 납골당으로 옮겼다. 논현동 개발로 인근으로 이주했던 최씨들은 논현동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다시 들어와 20여 가구가 살고 있다고 한다.

해주최씨 판사복씨공파 최일섭 회장은 논현동을 둘러싸고 있는 오봉산은 학의 모양을 하고 있어 논현동은 흠지도 덤지도 않은 쾌적한 동네였다고 회고한다. 현재 이 종중에선 종중 자녀 중 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장학금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쌀을 지급, 문중의 결속을 다지고 있다.

예전엔 인천만 해도 집성촌이 꽤 여러군데 있었다. 급격한 산업화 재개발로 자신들의 터전은 아파트나 도로에 내어주고 집을 싸야 했다. 집성촌의 중종을 이끌고 계신 어르신들의 평균연령은 70세 이상이다. 그분들의 소망은 조상을 모시고, 전통을 지켜 온 자신들의 정신을 후세대들이 이어갔으면 하는 것이다.



해주최씨(전한공파) 어르신들이 남촌동에 모였다.



# 일, 학업, 돈, 기쁨이 세 배!

## 인천전문학교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조차 일하기 어려운 요즘, 당당하게 나를 찾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전문기술을 익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도 좋다. 땀흘려 일하며 돈도 벌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인천전문학교'의 스리쿠션(3-cushion) 과정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 젊은이여, 꿈을 잃지 말자

계속되는 실업난으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취업을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현명한 젊은이라면 취업의 문턱 앞에서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당당하게 나를 찾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방법 중 하나는 전문기술을 익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 '인천전문학교'에서 그 명쾌한 해답을 찾는다. 인천전문학교는 1998년 인천직업전문학교로 인가를 받아 운영하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문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전문학교로 승인 받았다. 현재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와 부평에 제1·2캠퍼스가 있으며 영상미디어, 뷰티예술, 산업디자인, 관광경영 학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실무중심의 특성화된 교육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90%에 가까운 놀라운 취업률을 올렸다. "실업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교육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전문학교는 능력 중심의 기술사관학교입니다. 젊은이들이 취업에 성공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맘껏 펼치고 사회가 원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는, 인천전문학교 유선 이사장의 말에 학생들을 향한 진심어린 마음이 묻어난다.

### 남보다 먼저 전문가의 길로

인천전문학교에는 일석삼조, 일하면서 돈도 벌고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다. 이른 바 '스리쿠션(3-cushion)'. 입학과 함께 취업을 보장하는 과정으로 2012년 1학기에 입학하는 뷰티예술학과 신입생부터 시작한다. 산업체맞춤형 특별학부인 스리쿠션 전문학사 과정은 뷰티예술학과를 2년 6학기 과정으로 운영한다.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대형 미용실에서 일하며 일찍이 전문가의 길로 들어선다. 학교는 준오헤어, 리안헤어, 박준뷰티랩 등 대형 미용실 다섯 곳, 인천의 유명 미용실 스물다섯 곳과 이미 인력과 기술을 교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미용실은 우리나라 뷰티업계에서 이름 높은 업체들로,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는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일한 만큼 돈을 벌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으니,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현실이 여기서는 딴 세상의 이야기다.

### 세계적인 뷰티전문가로 크다

스리쿠션 과정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하루 9시간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며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특히 꿈과 열정만 있다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인천전문학교는 뷰티, 호텔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영국의 버밍햄대학교(The University of Birmingham)와 학점인정 및 교류 협정을 체결해 학생들에게 기회의 장을 넓혔다. 우리나라에서 2년 영국에서 2년 공부하는 '2+2(two plus two)'. 즉 인천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버밍햄대학에 3학년으로 편입하면, 적은 비용으로 명문대학의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인 뷰티전문가로 성장하는 길이 열린다.



젊은이들이여, 자신이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을 찾아 부지런히 구슬땀을 흘리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천전문학교 스리쿠션 과정 뷰티학과 신입생은 현재 수시모집 중으로, 내년 2월까지 120명을 모집한다. 문의 : 인천전문학교 772-1199, [www.iti.ac.kr](http://www.iti.ac.kr)

### 인천, 세상을 아름답게 Make up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수도권을 배후로 85개의 화장품기업이 모인 인천은 우리나라 뷰티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시는 이에 발맞춰 뷰티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베누스(Venus)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송도경제자유구역 플랜트 기공식과 지난 7월 인천의료관광재단의 설립을 계기로 뷰티산업과 바이오의료산업과의 연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올 하반기 중국 미용 전문가 1천여 명을 초청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뷰티산업체를 체험케 할 계획이다. 인천직업전문학교의 스리쿠션 과정도 뷰티 전문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뷰티산업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세상을 메이크업할 날이 멀지 않았다.





# 근대화, 산업화 겪으며 깊게 패인 굽은 주름

만석동은 한 세기 전 인천의 '신도시'였다. 일제는 갯벌을 메우고 산업단지와 위락시설을 유지하면서 신천지의 꿈을 키웠다. 이로 인해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오던 갯이부리(묘도)는 강그리 파헤쳐져 지도 속에서 사라졌다. 대신 그곳에는 '아카사키'라는 일제의 식민독이 박힌다. 바다로는 피란민을 받아들이고 육지로는 농촌의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만석동은 이제 쇠락한 포구 하나 가슴에 부여안고 그렇게 늙어가고 있다. 우리는 인천의 대표적인 쪽방촌인 이곳을 리모델링과 공동작업장 설치 등을 통해 재개발을 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을 100% 재정착 시킬것이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모델이다.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매립지 살리기 위해 창녀촌 유치**  
시계바늘을 100년 전으로 돌려보자. 경성을 떠난 지 두 시간을 힘차게 달려 온 철마는 철길 옆으로 해변이 길게 뻗은 종착지 인천역에 다다른다. 마중 나온 갈매기 한 마리가 열차 위를 선회하며 길을 안내한다. 열차는 질주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시원한 해풍으로 씻어낸다. 오른쪽 차창으로 흰 모래사장이 펼쳐지고 그 너머 바다 위에 크고 작은 섬들이 한가롭게 떠있다. 멀리 솟아 있는 영종도와 강화도는 마치 병풍을 두른 듯해 바다는 마치 호수 같

다. 한 폭의 그림 같은 이 모습은 100년 전 만석동 풍경이다.  
만석동의 본래 태생은 바다. 현재의 만석동 대부분은 갯벌을 메워 만든 땅이다. 바다와 접한 만석동은 1900년 초 만해도 조선인 20~30가구만 사는 아주 한적한 마을이었다. 이곳을 일본인 사업가 이나다(稲田)가 1906년 9월 만석동 앞의 갯벌을 메웠다. 이 매립으로 약 50만㎡(15만평)의 새로운 땅이 생겼다.  
그는 조선인 집들을 몰아내고 이곳에 정미소와 간장공장



을 유지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다. 더 이상 공장이 들어 오지 않았다. 매립으로 한몫 단단히 챙기려 했던 이나다는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보게 된다. 고심 끝에 그가 내놓은 방안은 유홍업소 유지였다. 당시 선화동에 있던 창녀촌 부도유곽을 본떠 ‘묘도유곽’을 설치했다. 묘도는 만석동 앞바다에 떠있는 조그만 섬이었다. 매립지에서 묘도 가는 길에 2층짜리 객실 6,7채를 만들고 구렁지에 해수탕과 고급 음식점을 갖춘 ‘팔경원’이란 위락시설을 세우는 등 주위를 흥등가로 만들었다.

구렁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현재의 만석교회 뒷마당에 서 보았다. 주위에 비해 살짝 높지만 시야가 트여 전망이 좋은 편이다. 조선총독 이토히로부미는 인천에 오면 이곳 팔경원에 가끔 들렀다고 한다. 술과 여자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돈이 풀리고 사람들이 꼬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시 이곳은 너무 외져서 이토의 발길도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결국 그 땅은 중국인들의 채소밭으로 전락하거나 대부분 오랫동안 잡초 무성한 황무지로 방치되었다.

만석동 매립지에 본격적으로 공장이 들어선 것은 동양방직(현 통일방직)이 문을 열면서부터다. 일본인들이 ‘동양

최대’라고 자랑한 이 공장은 1934년 10월 1일 종업원 3천명에 직조기 1천292대로 조업을 시작했다. 하루 품삯이 쌀 2되 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조선인들은 동양방직에 들어가길 원했다. 유니폼 입은 종업원들은 스스로 ‘동대(東大)’에 다닌다고 할 정도로 큰 자부심을 지녔다. 일설에 의하면 인천출신 영화배우 도금봉(본명 정옥순)도 이 공장에서 잠시 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단했제. 우리 큰 딸이 통일방직에 다녔는데 그 애 덕분에 동생들 다 공부했어. 월급날에는 이 일대가 하루 종일 들썩거릴 정도였으니까.” 46년 전 전남 남원에서 올라와 만석동에 정착해 6남매를 모두 출가시키고 홀로 살고 있는 김성순(78) 할머니의 설명이다.

이 공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한 획을 긋는 현장이 된다. 유신말기인 1978년 여성노조원들은 이른바 ‘똥물테러’를 당한다. 이 똥물은 부메랑이 되어 유신정권이 뒤집어쓰게 된다. 동양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이 공장은 이후 섬유업 퇴조에 따른 생산시설 이전 등으로 만석동 시대를 서서히 접고 있다. 기다란 공장 담장 안에서는 여 근로자들의 재갈거림 대신 늦여름 매미 소리만이 한가롭게 넘어왔다.



(위) 만석동 쪽방촌의 터줏대감이자 산증인 이용준·양순옥 부부. 20년 전 인천시로부터 받은 표창장을 오랜만에 꺼내들었다.

(옆) 만석동에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공동화장실이 있다.’



### 잠수함 만들던 동네

조선기계제작소(현 두산인프라코어)를 빼놓고는 만석동을 얘기할 순 없다. 이 회사는 1937년 6월 광산용 기계 생산업체로 설립되었다. 공장 터를 조성하면서 ‘깡이부리섬’으로 불린 묘도(猫島)를 깡그리 뭉갠 것으로 보인다. 그 위치는 현재의 삼미사 혹은 옛 한국유리공장 앞도로 부근으로 추측된다. 당시에는 육지의 끝 지점이다. 바다의 길목 묘도에는 조선의 포대가 있었다. 포대는 강화와 한강으로 향하는 이양선(異樣船)을 향했다. 분도, 사도, 원도(낙섬), 아암도, 청라도, 울도, 소월미도…. 묘도와 함께 지도에서 사라진 섬들이다. 이 섬들이 살아있다면 인천은 아름다운 다도해(多島海)였을 것이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인천을 대륙병참기지로 삼는다. 1943년 4월 말 조선기계제작소는 일본육군조병창으로부터 잠수함을 건조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잠수함을 진수시키기 위해 도크를 신축하고 1천300여 명의 인력을 확충하고 그들을 위한 숙소(宿舎) 112동을 새로 건축한다. 이때에 세워진 집들이 현재의 ‘아카사키촌’의 근간이 된다.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화장실도 없는 쪽방으로 집을 지었다. 골목은 딱 어른 어깨 넓이다. 60년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근로자들이 묵었던 왜색풍의 집들이 험겨운 채 곳곳에 남아 있다.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공동변소’를 사용한다. 잠수함 1호기는 명령받은 지 1년 만에 제작돼 진수되었다. 해방될 때 까지 총 4척의 잠수함이 만석도크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갔다. 광복을 맞아 진수되지 못한 두어 척의 잠수함들은 60년대 초반까지 도크에서 녹슨 고철이 돼 나뒹굴었다.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은 만석동을 ‘잠수함 만들던 동네’라고도 불렀다.

현재 아카사키촌에는 294동 판잣집에 548명이 살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군수공장 기술자들이 모여 살던 이 동네는 해방 후 6·25 전쟁 중에 주로 배를 타고 황해도에서 건너 온 피란민들이 정착했다. 이어 6,7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호남과 충청지역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의 터전이 되었다.

“우리 부부가 이곳에서 가장 오래 살았을거요. 옛날 판유리공장 뒤편에 나가면 바지락이 지천이었는데 그거 잡으며 살았지. 그거 팔아도 충분히 먹고 살았으니까. 나중에 인천시 도움을 받아 5톤짜리 조그만 뗏마(배) 40척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같이 낚시배 부리면서 살았어요.” 이용준(84) 양순옥(81) 노부부는 아카사키촌의 터줏대감이다. 난리통에 황해도 웅진군에서 피난 나와 고향으로의 귀환을 꿈꾸며 이곳에 지금까지 살고 있다. 만석동은 80년대 까지 반어반노(半魚半勞)의 동네였다.

주인집은 배를 부리고 세 들어 사는 사람은 공장에 다녔다. 지금은 믿기 힘들지만 만석동에 ‘비치’가 있었다. 지금처럼 뽁뽁하게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갯벌과 모래가 뒤섞인 바닷가를 끼고 있었다. 그걸 추억이라도 하듯 2002년에 재개발된 고층아파트의 이름을 ‘만석비치타운’이라고 지었다.



이젠 도시의 뒤편으로 물러나있지만 바다는 아직도 만석동 주민의 젖줄이다. 이곳을 출항해 영흥도, 덕적도 등에서 바지락, 주꾸미 등을 잡아온다.





만석동이 품고 있는 작약도. 바다에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그 섬은 이 땅의 아픔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다.

오랜만에 햇살이 평한 만석부두가에 널린 망둥이들도 선뎀하며 고들고들 익어간다.



### 만석동이 품은 부두와 섬

만석동이 바다를 완전히 잃은 게 아니다. 여전히 부두와 섬을 품고 있다. 질펀한 부두의 옛 정취는 다 사라졌지만 이곳을 통해 사람들은 바다로 나간다. 강화 동검도와 마주하고 있는 세어도를 가려면 이곳에서 하루에 한 번 왕복하는 행정선을 타야한다. 이제 이곳은 낚시배들의 출항지로 변모했다. 지난 8월 16일 비가 억수로 퍼붓는 날이었지만 아침 7시경 30여 척의 배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로 나갔다.

“지금은 낚시철이 아니라 대신 영흥도, 자월도 등에 가서 조개들을 캐와요. 재미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직업인 사람도 있는 거 같아요. 오후 5시경에 돌아오는 데 배에서 내린 조개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해경 만석출장소의 정지범 수경의 설명이다. 바다로 나가려면 이곳에서 승선신고를 해야 한다.

만석부두에 서면 마치 봉분처럼 봉긋 솟은 섬이 하나 보인다. 멀리뛰기라도 하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작약도다. 작약도의 행정구역은 만석동이다. 이 섬은 이번에 ‘만석동 작약로’라는 새주소를 얻었다. 일제가 매립하지 않고 섬으로 그대로 둔 게 고마울 따름이다.

공장지대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면 갯벌 위에 레일이 깔려 있는 등 다소 낯선 바다가 나온다. 후미진 그 바닷가에는 우리가 도시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광경이 펼쳐진다. 선박을 만드는 중소 규모의 조선소가 있고 그 옆으로는 고장난 배들을 수리하는 일종의 ‘선박병원’이 있다. 모퉁이를 돌면 선박을 해체하는 도크도 있다. 수만리 바다를 항해한 여객선, 화물선 등이 그 생명을 다하고 장기가 적출되는 현장이다. 이렇듯 만석동 뒷바다에는 요람부터 무덤까지 선박의 일생이 있다.

### 50년 된 만석우체국

경인선 철로에 양쪽으로 이웃한 만석동과 송월동은 같은 생활권이었다. 주민들은 철도간수가 지키고 있는 건널목을 건너다니며 부두로 공원으로 서로 자유롭게 교통했다. 1962년 9월에 문을 연 만석우체국은 두 동네가 만나는 길목에 있어 늘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오랫동안 바다에 나가 있던 어부가 물에 나와 맨 먼저 달려온 곳도 이곳이고 한 달 봉급을 받은 공장 근로자도 먼저 발길을 돌린 곳도 이곳이다. 그들은 ‘부모님전상서’로 시작되는 편지를 보내거나 우편환으로 고향에 돈을 붙이기도 했다. 그들의 꿈은 만석우체국에서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러던 중 안전을 위해 철로변에 차단벽이 세워지고 그 위로 만석고가도로가 생겼다. 단절은 곧 퇴락으로 다가왔다. 발길이 끊긴 우체국은 이제 만석동과 같이 그렇게 쓸쓸히 늙어가고 있다.



벧사람, 공장노동자들과 50년 세월을 함께 해 온 만석우체국

선박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있는 만석동의 해안가에 있는 선박관련 업체들





SUN	MON	TUE	WEN	THU	FRI	SAT					
<div>9월의 展</div> <div>9월 2일~9월 8일 2011글로벌사각오케스트라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div> <div>9월 2일~9월 8일 제29회제물포예술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div> <div>9월 4일 한국화 3인 3색-고친규, 이현범, 최병국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기온갤러리</div> <div>9월 6일~9월 10일 1318 미술실기대회 수상작품전 및 인천답사 결과를 발표회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기온갤러리</div> <div>9월 9일~9월 15일 제47회 전국공모인미술대전 및 초대작가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div> <div>9월 16일~9월 22일 아름다운 뱃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진시실</div> <div>9월 16일~9월 22일 개인전 '잠상'(潛穡)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div> <div>9월 16일~9월 22일 제19회 인천광역시근로자 종합예술제전시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진시실</div> <div>9월 16일~9월 22일 2011인천광역시비탈관축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div> <div>9월 23일~9월 30일 사진작가 3인 3색-이충훈, 임기성, 박황재형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기온갤러리</div> <div>9월 24일~9월 30일 2011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div>											
<div>4</div> <div>연극 (이영홍전)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7시 30분 생인 VIP 5만원, 마루 3만원 청소년 VIP 3만원, 마루 1만원 인천문화발전연구원 1777-8866</div> <div>바벨소레아(지소)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11시, 오후 2시, 4시 / 전석 2만원 극단예인 1566-9821</div> <div>임요국악상설공연 '영산'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인천광역시 1518-1511</div> <div>뮤지드라마 '영산비이' 부평아트센터 블루리극장 오후 3시 / 2만원, 1500-2000</div> <div>인하 오케스트라 제13회 정기연주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저울 / 오후 7시 1010-5207-1534</div>	<div>5</div>	<div>6</div> <div>인천간생협회의 함께하는 (해피) 인천시민문화회)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초대 대한간생협회의인찬지회 439-7272</div> <div>근남씨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저울 오후 7시 / 무료 전석 무료 1566-3455</div>	<div>7</div> <div>제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문화 행사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사회복지동사와 440-2312</div> <div>제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문화 행사 (상설)가정 아틀다온 이틀 (여니)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사회복지동사와 583-1773</div> <div>친환경4유전 국악 '영장수 맘대로'~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3천원 507-5866</div>	<div>8</div> <div>7인의 음악인들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인천80조 1888-2341</div> <div>인천남동문문화예술회 422-0285</div> <div>황금토끼 (유진 국악의 새로운 견종)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44</div>	<div>9</div> <div>제9회 남동문문화예술회 무용작가공연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인천남동문문화예술회 422-0285</div> <div>황금토끼 (유진 국악의 새로운 견종)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44</div>	<div>10</div> <div>동춘사극스-미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4시 30분, 7시 VIP 5만원, R석 4만원, S석 3만원 극단예인 1566-9821</div> <div>황금토끼 (두드림 수 있는 건 약가다)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44</div>	<div>1</div> <div>연극 (이영홍전)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7시 30분 생인 VIP 5만원, 마루 3만원 청소년 VIP 3만원, 마루 1만원 인천문화발전연구원 1777-8866</div> <div>바벨소레아(지소)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11시, 오후 2시, 4시 극단예인 1566-9821</div> <div>황금토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2</div> <div>뮤지드라마 '영산비이' 부평아트센터 블루리극장 오후 3시, 7시 / 2만원 1500-2000</div> <div>아진내 청소년 교향악단 제42회 정기연주회 영재문서트 II탄 '협주곡의 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저울 오후 6시 / 전석 5천원 아진내 청소년 교향악단 010-6345-2804, 010-8838-6442</div>	<div>2</div> <div>연극 (이영홍전)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7시 30분 생인 VIP 5만원, 마루 3만원 청소년 VIP 3만원, 마루 1만원 인천문화발전연구원 1777-8866</div> <div>황금토끼 (해설이 있는 세계음악여행)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오후 7시 무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2</div> <div>뮤지드라마 '영산비이' 부평아트센터 블루리극장 오후 8시 1016-774-0014</div> <div>경인비송 '백영국의 가교'는 마을'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3천원 505-5866</div>	<div>3</div> <div>연극 (이영홍전)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7시 30분 생인 VIP 5만원, 마루 3만원 청소년 VIP 3만원, 마루 1만원 인천문화발전연구원 1777-8866</div> <div>바벨소레아(지소)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11시, 오후 2시, 4시 극단예인 1566-9821</div> <div>황금토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2</div> <div>뮤지드라마 '영산비이' 부평아트센터 블루리극장 오후 3시, 7시 / 2만원 1500-2000</div> <div>아진내 청소년 교향악단 제42회 정기연주회 영재문서트 II탄 '협주곡의 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저울 오후 6시 / 전석 5천원 아진내 청소년 교향악단 010-6345-2804, 010-8838-6442</div>	<div>17</div> <div>2011 앙상블 톨리노 리아노 (Impression)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div> <div>임기정 피아노 이이거 시리즈 피아노-소플리아거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1만원 580-7280</div> <div>황금토끼 (유진 연주회)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2</div> <div>유진국악 '아니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저울 오후 4시 전석 6천원, 학생 무료 760-3455</div>	<div>24</div> <div>황금토끼 인천시민무용단의 (송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44</div> <div>뮤지드라마 '꿈간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저울 오후 4시 전석 6천원, 학생 무료 760-3455</div>
<div>11</div> <div>임요국악상설공연 '영산'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인천광역시 1518-1511</div>	<div>12</div>	<div>13</div>	<div>14</div> <div>블루트 댄스 앙상블 '사랑의 인사'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3천원 507-5866</div>	<div>15</div> <div>황금토끼-이은주의 춤 그림자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전석 2만원 이은주무용단 835-8821</div> <div>제19회 인천광역시 근로자 종합예술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 초대 한국노총인천본부 437-8501~3</div> <div>황금토끼 (송제 찾기 콘서트)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2</div>	<div>16</div> <div>인천시민교향악단 제42회 정기연주회 (핀란드의 자랑 시벨리우스)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시민교향악단 1588-2341</div> <div>제19회 인천광역시 근로자 종합예술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 초대 한국노총인천본부 437-8501~3</div> <div>황금토끼 (송제 찾기 콘서트)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2</div>	<div>17</div> <div>2011 앙상블 톨리노 리아노 (Impression)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div> <div>임기정 피아노 이이거 시리즈 피아노-소플리아거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전석 1만원 580-7280</div> <div>황금토끼 (유진 연주회)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2</div> <div>유진국악 '아니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저울 오후 4시 전석 6천원, 학생 무료 760-3455</div>	<div>24</div> <div>황금토끼 인천시민무용단의 (송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44</div> <div>뮤지드라마 '꿈간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저울 오후 4시 전석 6천원, 학생 무료 760-3455</div>				
<div>25</div> <div>소피노 나카가시 돌기 에메랄드캐슬 콘서트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6시 전석 525천원 한대일포 인천문화 833-0088</div> <div>임요국악상설공연 '영산'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인천광역시 1518-1511</div>	<div>19</div>	<div>20</div>	<div>21</div> <div>인천시민합창단 제17회 정기연주회 오라토리오 (오세)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5시 전석 1만원 인천시민합창단 1588-2341</div> <div>인천80조 카바레시트V 조이 오브 스타일스의 Song&amp;Dance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원 인천80조 1588-2341</div>	<div>22</div> <div>인천시민합창단 제17회 정기연주회 오라토리오 (오세)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인천시민합창단 1588-2341</div> <div>황금토끼 (리처드와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여행)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2</div>	<div>23</div> <div>인천시민합창단 제17회 정기연주회 오라토리오 (오세)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인천시민합창단 1588-2341</div> <div>황금토끼 (리처드와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여행)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2</div>	<div>24</div> <div>황금토끼 인천시민무용단의 (송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44</div> <div>뮤지드라마 '꿈간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저울 오후 4시 전석 6천원, 학생 무료 760-3455</div>					
<div>26</div>	<div>27</div> <div>제15회 인천여성문화회관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인천여성문화회관 518-3827</div> <div>바리톤, 오펜송, 독창회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초대 인천여성문화회관 518-3827</div> <div>황진환소리 '남아라 예곡'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전석 3천원 505-5866</div>	<div>28</div> <div>인천해양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VIP석 7만원, R석 5만원 (주대)홍상사 웨이스 초대 인천해양학교 522-8345</div> <div>인천80조 카바레시트V 조이 오브 스타일스의 Song&amp;Dance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원 인천80조 1588-2341</div>	<div>29</div> <div>리브콘서트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VIP석 7만원, R석 5만원 (주대)홍상사 웨이스 초대 인천해양학교 522-8345</div> <div>인천80조 카바레시트V 조이 오브 스타일스의 Song&amp;Dance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전석 1만원 인천80조 1588-2341</div>	<div>30</div> <div>인천시민교향악단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아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시민교향악단 1588-2341</div> <div>뮤지드라마 '꿈간기'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저울 오후 4시 전석 6천원, 학생 무료 760-3455</div>	<div>31</div> <div>연극 (이영홍전)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7시 30분 생인 VIP 5만원, 마루 3만원 청소년 VIP 3만원, 마루 1만원 인천문화발전연구원 1777-8866</div> <div>바벨소레아(지소)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11시, 오후 2시, 4시 극단예인 1566-9821</div> <div>황금토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2</div> <div>뮤지드라마 '영산비이' 부평아트센터 블루리극장 오후 3시, 7시 / 2만원 1500-2000</div> <div>아진내 청소년 교향악단 제42회 정기연주회 영재문서트 II탄 '협주곡의 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저울 오후 6시 / 전석 5천원 아진내 청소년 교향악단 010-6345-2804, 010-8838-6442</div>	<div>32</div> <div>연극 (이영홍전)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오후 2시, 7시 30분 생인 VIP 5만원, 마루 3만원 청소년 VIP 3만원, 마루 1만원 인천문화발전연구원 1777-8866</div> <div>바벨소레아(지소)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오후 11시, 오후 2시, 4시 극단예인 1566-9821</div> <div>황금토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420-2732</div> <div>뮤지드라마 '영산비이' 부평아트센터 블루리극장 오후 3시, 7시 / 2만원 1500-2000</div> <div>아진내 청소년 교향악단 제42회 정기연주회 영재문서트 II탄 '협주곡의 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저울 오후 6시 / 전석 5천원 아진내 청소년 교향악단 010-6345-2804, 010-8838-6442</div>					





인천시립합창단 <제127회 정기공연 오라토리오 '모세'>  
일시 · 티켓 9월 21일(수) 오후 5시 / 전석 1만원  
9월 22일(목)~23일(금) 오후 7시 30분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엔티켓 1588-2341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12회 정기연주회 <핀란드의 자랑 시벨리우스>  
일시 7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앙상블 디토 리사이틀 <Impressionism>  
일시 9월 17일(토) 오후 7시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엔티켓 1588-2341



#### 기획 공연 앙상블 디토 리사이틀 <Impressionism>

19세기 프랑스 파리로 무대를 옮겨 강렬한 색채감과 깊이 있는 울림으로 다가오는 인상주의 음악을 선보인다. 대표적인 인상주의 작곡가인 드뷔시와 라벨 그리고 포레의 실내악 음악을 레퍼토리로 선정해 연주한다. 앙상블 디토는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환상적인 음악의 호수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 국악뮤지컬 <김영임의 소리 孝(효) 대공연>

전통음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이끌고 '우리 것'을 찾는 데 선 구자적 역할을 해 온 경기명창 김영임이 후회의 정한을 노래한다. 우리 모두의 인생을 담아 들려주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부모님에게 숙연한 마음을 갖게 한다. 그녀의 소리를 들으며 효(孝)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가슴에 담아 볼 수 있다.

#### 뮤직 드라마 <당신만이>

뮤지컬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와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통해 대중적 사랑과 평단의 인정을 받은 위성신이 연출을 맡아 기대되는 작품이다. 또한 뮤직드라마 <당신만이>는 지난 4월 2일 개관 1주년을 맞은 부평아트센터의 첫 제작공연으로, 아트센터 상주단체인 극단 <십년후>의 단원들이 출연한다.

#### 인천&아츠 공연 <7인의 음악인들>

예술감독 겸 피아니스트 정명훈을 주축으로 한국 클래식 미래를 연 4명의 솔로리스트, 피아니스트 손열음, 바이올리니스트&비올리스트 이 유라, 바이올리니스트 신아라, 첼리스트 송영록 등이 어느 해보다 젊고 신선한 실내악 앙상블을 선사한다. 여기에 관록의 첼리스트 양성원이 2011년에도 <7인의 음악인들>의 터줏대감으로 든든히 자리한다.

## 들물, 인천의 포구를 말하다

9월 2일~10일  
인천아트플랫폼 크리스탈큐브  
Opening 9월 2일 오후 6시  
축하공연 \_ 서승아의 퍼포먼스



김정여 / 연안부두 / 40X60cm / Digitan print



현종훈 / 북성포구 / 40X60cm / Digitan print



양 룡 / 소래포구 / 40X65cm / Digitan print

사진그룹 이마고(IMAGO)는 지난 2000년 초반부터 인천을 기록하는 중이다. 인천가톨릭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사진영상반 수료생을 중심으로 인천에서 활동하는 사진가들로 구성된 이마고는 지난 2003년에 모임을 결성하면서 인천의 변화상과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연령과 살아 온 환경은 모두 다르지만 인천 지역을 카메라를 통해 관찰하고 기록하는 사진 작업에 이들은 사명감 그 이상을 느꼈다. 대부분 인천토박이거나 20~30년 이상 인천에서 살아 온 이들이다. 이번의 네 번째 이마고 사진전에선 화수부두에서 연안부두, 만석부두, 북성부두, 소래포구 등으로 보다 시선을 넓혔다. 사진 속에선 이마고 회원들이 걷고 대화하고 사색했을 시간과 마음이 전해진다. 토박이 인천 사진가들은 제각기 경험과 기억에서 포구를 찾아 사연과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애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이 각자의 미의식과 만나 하나하나의 포구 풍경을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 모여 인천의 살아있는 현재의 모습을 구성한다. 추억 속으로의 여행을 그리며...

#### 인천사진 전문작가회 제1회 사진전

### 다양함의 도시, 인천

현재 인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진 활동을 하는 전문작가 7인(홍승훈, 서부원, 정수우, 정성진, 최지훈, 김지열, 김민영)이 인천을 보다 창조적, 실용적으로 표현하며 인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석한다.

기간 : 9월 21일~10월 9일  
장소 : 미추홀도서관 1층 미추홀갤러리



홍승훈 / 인천의 얼굴





## ‘인천을 합창의 성지로’

윤학원 인천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최근 모 예능프로그램에서 방영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청춘합창단’의 인기가 대단하다. 출연진을 비롯해 지휘자인 국민할매 김태원, 그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윤학원 인천시립합창단 예술감독(73)의 열과 정성을 다한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진한 감동과 희로애락을 노래하는 합창. 합창의 대중화와 전 국민적 확산을 위해서라면 윤학원 감독은 어디라도 간다. 합창 전도사나 다름없다.

윤 감독은 학교, 직장, 사회에서 합창부가 없어지는 것이 안타깝다. 사회가 개인화, 세분화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어렵고, 시간 맞추기 힘들면서 합창부가 없어지고, 합창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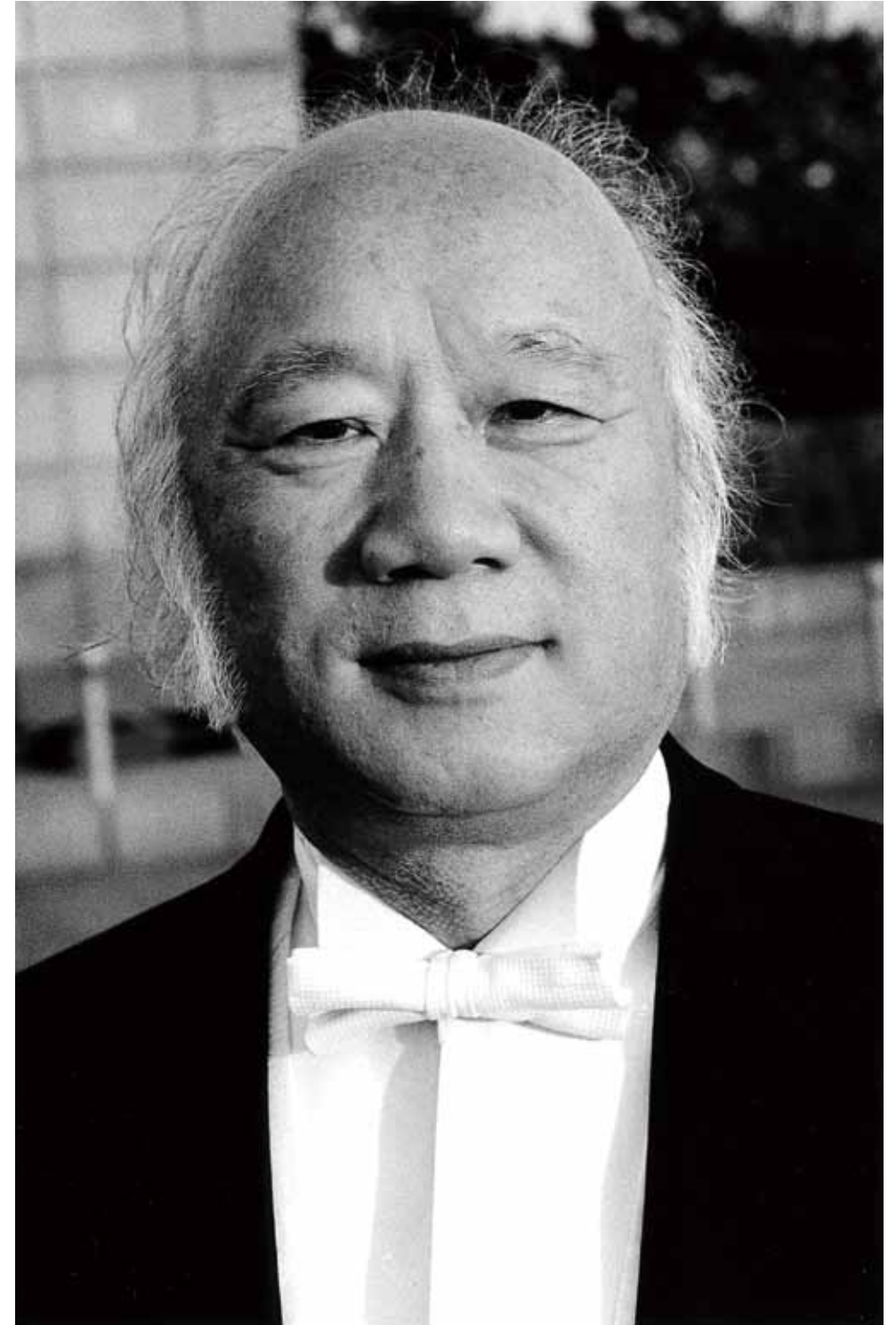
“합창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협동하는 것을 모릅니다. 민주주의는 평소엔 자기 일을 하고 자기역할이 왔을 때 그 역할에 충실하면서, 다른 사람과 협동하며 돕는 것입니다. 합창을 하면 이런 민주주의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은 국내 지자체 합창단 중 가장 특별하다. 40여 개 지자체 합창단 중 유일하게 전임 작곡가가 있어 인천시립합창단만이 부를 수 있는 곡을 만든다. 한국적 정서를 갖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통하는 현대화된 곡들이다. ‘메나리’, ‘팔소성’ 등. 이런 레퍼토리로 미국, 유럽에서 공연을 갖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인천시립합창단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까지는 윤 감독의 노력과 수고가 숨어 있다.

사실 그는 15년 전 시립합창단이 해체된 후 다시 복구할때 구원투수 역할로 합창단 감독이 됐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세계의 거장들이 모인 미국합창지휘자연합회로부터 세계 4대 합창단으로 인정받았고, 프랑스로부터 세계 6대 합창단 중 하나로 초청되는 영광을 안았다. “인천이 합창의 도시가 됐으면 합니다. 세계적인 합창의 도시가 되어 세계합창대회를 열고 ‘세계청소년합창단’을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창단은 5백개, 일본은 2만개, 미국의 합창인구는 100만이 넘는다.

인천시립합창단을 알리고 발전시키는 일이라면 백백성성한 노 감독은 어디든 간다. 지난번엔 모 예능프로그램에 나가 합창단원들의 기량과 음악실력을 뽐내 시청자들을 놀래킨 바 있다. 음악을 하면서 젊어지고, 젊어져서 더욱더 좋은 음악공연을 하고 싶다는 윤 감독은 남은 생도 지휘봉과 함께할 것이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 가족은 나를 지탱하는 힘

배우 인상희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제철회사에 다녔다. 시커먼 공장에서 전국에서 모인 쇧덩이를 용광로에 넣고 뜨겁게 녹여 쇧물을 만들었다. 소년은 그렇게 힘겹게 삶을 지탱해야 하는 아버지가, 그래도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가난이 싫었다. 그런 그가 남의 집에서 얻어 보던 텔레비전 속 세상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헤지면 겁고 또 기워야 하는 남루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년은 배우를 꿈꾸었다.

무면허 외과의사, 시골가게 주인, 사기꾼 박씨, 경찰 4... 배우 인상희(본명 이상희)의 스크린 속 삶은 어릴 적 그가 그리던 꿈처럼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단역일지라도 관객들은 자꾸 그에게 시선이 가고 정이 느껴지고 잔상이 어린다. 그이기에 표현할 수 있는 개성과 바닥부터 쌓아 온 연기력이 탄탄히 받쳐 주기 때문이다. 충무로에서 잘나가는 조연 대부분이 그렇듯 그는 연극판에서 잔뼈가 굵다. 스무 살 나이에 단원모집 공고를 보고 극단 엘칸토에 입단해 줄곧 연극판에서 뒹굴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스크린과 브라운관에 얼굴을 비추며 대중에게 친숙한 배우가 됐다.

“연극을 하면서 늘 배고팠어요. 그러다 힘든 삶을 견디지 못하고 아내가 어린 자식을 데리고 집을 나갔지요. 정신이 번뜩 들었어요. 가족을 찾아야 했고 다시 일어서야 했어요.”

살기 위해 시작한 제2의 연기인생에서, 그는 ‘연기 잘하는’ 배우로 인정받으며 필모그래피를 착실히 쌓고 있다. 드라마 ‘국가가 부른다’, ‘바람의 화원’, 영화 ‘추격자’, ‘차우’, ‘마이파더’... 대부분 대중과 평론으로부터 인정받은 작품들이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배우가 되는 꿈을 키웠다. 단 자기는 ‘아빠처럼 가난한 배우가 아닌 부자배우’가 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열일곱 아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는 어렵게 미국 유학길을 마련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타지에 간 지 3개월이 안 돼 이 세상에는 없는 존재가 되어 돌아왔다. 그의 눈에 아픈 눈물이 맺힌다. 가슴이 먹먹하여 묻는 사람도 답하는 사람도 긴 말을 이을 수 없다.

이상희는 아직도 아들이 물던 까만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 사람들은 잊으라 하지만 그는 “왜 버려야 하나”고 되묻는다. 버릴 수 없는 아들을 더 깊숙이 새기기 위해 그는 무대를 준비한다. 연인같은 엄마와 아들의 뜻하지 않은 마지막 여행이야기 ‘해피버스테이 투 유 101’,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서구문화회관에서 공연한다. 가슴속 깊이 또 가까워서 그의 곁에 머무르는 가족은, 배우 인상희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 책과 문화의 ‘향연’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어느덧 지리했던 여름더위가 가고, 고개를 들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이 눈에 들어온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 선선한 기온... 살갗은 가을이 몸 속 깊은 곳까지 와 있음을 감지한다. 책읽기 좋은 계절 가을, 도서관런 문화행사가 시민들을 책의 세계로 이끈다.

우리시는 인천을 책읽기 선도도시로 만들고, 책 읽기에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 유명작가를 초청, ‘작가와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다. 먼저 인천지역을 주요 무대로 촬영한 공지영씨의 작품 ‘도가니’가 9월 중 개봉 할 예정이다. 그 즈음 공지영씨를 초청, 작품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광장을 모티브로 삼아 유명작가를 초대, 콘서트 형식으로 여는 작가와의 대화도 갖는다. 미추홀도서관은 박연철 작가, 수봉도서관은 이호백 작가, 부평기적의도서관은 그림책 작가를 초청 원화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울목도서관은 소설, 시 등 문학작품을 모티브로 탄생한 음악을 만나는 행사인 ‘책, 음악과 통하다’ 북콘서트를 소극장에서 진행한다.

20~30세 대학생 및 일반인과 책에 관해 이야기하는 ‘토

크인’ 행사를 열어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책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토크형식으로 보여준다. 또 가을에 읽기좋은 책 100선을 선정 발표하고,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으로 나누어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천도서 목록을 배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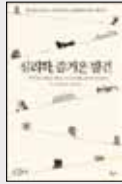
시는 독서를 통한 문화행사를 열어 시민들에게 즐길거리를 선사한다. 연극이나 그림자극, 복화술 등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울목도서관은 실버극단의 옴니버스 연극 ‘백년회로’를 비롯하여 미추홀도서관의 ‘사랑에 빠진 개구리’ 등 인형극과 이야기꾼의 책공연 ‘어처구니 이야기’를 공연한다. 부평기적의도서관에선 ‘거미 아난시’ 등 그림자극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지난 8월 31일 남구 수봉인공폭포공원에서 한여름밤의 시낭송 콘서트가 열렸다. 우리시대 주옥같은 시를 써갈채를 받았던 강은교, 도종환 시인을 초청, 늦 여름밤을 시와 함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올 가을 인천은 책을 통해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는 거대한 시민들의 문화참여 체험공간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 이달의 冊



#### 심리학, 즐거운 발견

애드리언 편함 | 북로드

영국 태생의 심리학자 애드리언 편함이 말하는 그들만 아는 심리학의 숨은 이야기. 행동과 생각, 감정과 사고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순수 학문이자 응용 학문으로서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리학에 대한 핵심적 테마 50가지를 엄선했다. 최초의 심리학 논의부터 최근의 심리학 연구까지 다룬다.



#### 세시봉, 서태지와 트로트를 부른다

이영미 | 두리미디어

포크 세대인 청년문화와 7080시대, 이들의 자식 세대라 할 수 있는 서태지·H.O.T. 세대들이 각기 어떻게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지 살펴본다. 세시봉 열풍을 한순간의 유행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간고한 세대 장벽을 허물고 음악을 통해 각 세대의 문화를 소통하게 만드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 온돌의 근대사

권석영 | 일조각

온돌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온돌의 변화와 흐름을 살펴본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돌관의 모순을 시작으로 온돌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야기한다. 그간 온돌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기존의 시각을 벗어나 온돌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에 주목했다.



#### 조치원역

오철수 | 새미

김규동, 김명수 시인의 추천으로 <민익>를 통해 등단한 저자의 시집. <당신이 오신다니>를 비롯해 40여 편의 시를 수록했다. <당신이 오신다니 하늘도 높구나> 앞산이 한걸음 다가와 정성스레 발일하고 경충한 옥수수 이파리는 출렁출렁 돌아다니며 백록별 한 움큼씩 비로 인양 뿌리는 구나> - 당신이 오신다니 중에서.

### 주제별 추천도서

자료제공 인천시 미추홀도서관 440-6655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책과 독서의 문화사	정현백	동녘	책, 출판, 독서의 사회문화사에 주목한 연구서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버트런드 러셀	비아북	버트런드 러셀의 실천적 삶 시대의 기록
심리학, 즐거운 발견	애드리언 편함	북로드	당신은 모르고 그들만 아는 심리학의 숨은 이야기
한국무역의 역사	최광식 외	청아출판사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한국의 무역을 규명한다
음식 인문학	김찬호	문학과지성사	음식으로 본 한국의 역사와 문화
창의 수학 퍼즐 1000	이반모스크비	티넨포인트	인간의 역사에서 만들어낸 모든 유형의 퍼즐 책
온돌의 근대사	권석영	일조각	온돌을 둘러싼 조선인의 삶과 역사
세시봉, 서태지와 트로트를 부른다	이영미	두리미디어	이영미의 세대공감 대중가요
근대의 세 변역가	김옥동	소명출판	서재필과 최남선 그리고 김억을 중심으로 번역의 과정과 이를 둘러싼 문제
모든 것에 따뜻함이 숨어있다	박완서	웅진씽크빅	작가 박완서가 남긴 인생과 문학의 아름다움
조치원역	오철수	새미	위기에 직면한 부부의 치열한 대립!
십자군이야기	김태권	비아북	십자군 전쟁을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 이달의 인천작가



오철수

본명은 오환섭, 1958년 인천에서 출생했다. 1986년 <민익>를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했고, 민족문학작가회의 사무국장, 이사를 역임했다. 현재는 사이버 노동대학 문화교육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시집 <아버지의 손>, <먼 길 가는 그대 꽃신은 신었는가>, <아주 오래된 사랑>, <아름다운 변명>, <조치원역>, <독수리처럼>, <사랑은 메아리 같아서> 등과 산문집 <나무로부터 배우는 사랑>이론서 <현실주의 시 창작의 길잡이>, <시 쓰기 워크숍 1,2,3>, <영혼을 두드리는 시 창작 길라잡이 1,2,3,4,5,6,7,8> 등이 있다.



## 굴곡의 역사 따라 달린 경인철도

글 조우성 시인 · 인천시 시사편찬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제66주년 철도의날 '경인북선개통'



1910년대 인천항세관 앞을 지나는 기차

기차는 문명개화의 상징이었다. 기차 모형을 갖고 귀국한 주미 대리공사 이하영이 고종황제에게 철도의 효용성을 역설한 이래, 조정은 철도 부설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나라의 힘이 그에 미치지 못하자 부설권을 미국인 모오스에게 이양했다.

1899년 3월 22일, 이날은 우리나라 철도사의 막을 연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오전 9시, 인천부 우각리 야트막한 언덕배기에는 조정의 관리들과 인천 주재 각국 외교관, 경제인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의 주인공은 미국인 모오스(Jamws R. Morse).

공사 총감독 콜بران, 한국개발공사의 타운센드 등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모오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뭔가 채 풀리지 않은 봄 날씨 같은 서늘함이 스쳐 지나고 있었다. 일본을 따돌리고 어렵사리 얻은 부설권이었지만, 미국에서의 자금 모집이 저조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

모오스는 결국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1898년 12월 호시탐탐 경인선 장악을 노리고 있던 일본인에게 부설권을 되넘겨 주고 말았다. 일본인들은 경인철도인수조합을 경인철도합자회사로 바꾸어 나머지 공사를 속행했다.

경인철도합자회사는 1899년 4월 23일 인천역에서 제2차 기공식을 갖고 열심히 공사한 결과 같은해 9월 18일 인천역에서 개통식을 거행하고, 인천~노량진 32.2km의 노선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당시 독립신문은 경인선 개통 소식을 1899년 9월 19일자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다.

“어저께 개업 예식을 거행했는데, 인천서 화륜거(火輪車·기차의 별칭)가 떠나 영등포로 와서 경성의 내외국 빈객들을 수레에 영접하여 앉히고, 오전 9시에 떠나 인천으로 향하였는데, 화륜거 구르는 소리는 우레 같아서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거의 굴뚝에서 연기는 반공에 솟아올랐다.”

따라서 일부에서 경인선 개통식을 노량진에서 했다는 주



철도신호등

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날 서울과 인천의 빈객들은 노량진에 간일조차 없었으니 현재 노량진역 구내에 한국 철도 시발지비가 세워져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역사 오류인 셈이다. 그 주체가 어떻든, 비를 인천역으로 옮겨 영육이 접철된 우리 철도사를 후세에게 바르게 알려 줄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경인선은 개통 당시 33.2km(인천역~노량진역) 구간을 증기기관차 4대, 객차 6량, 화차 28량으로 1일 2왕복, 1시간 30분에 달렸다. 초보적 수준이었으나 일제가 대륙 침탈 야욕의 하나를 실현한 것으로 그들이 해외에서 경영한 최초의 철도로도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경인선은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홍보 부족과 비싼 요금 때문이었다. 백성들이 인천서 서울로 가자면, 기선이나 뚝단배 혹은 말이나 가마를 이용했던 것이다. 또한 배일 감정으로 열차 운행에도 지장이 많았다.

경영난이 풀리기 시작한 것은 월미도유원지 개발 이후였다. 월미도가 조탕, 해수 풀장, 벚꽃놀이 등으로 명성을 얻자 봄철에는 화열차(花列車)까지 편성해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했고, 직행 열차까지 운영해 경향의 여객들에게 인기를 얻기도 했다.



개찰기

그러나 경인선은 단순한 여객만 수송한 것이 아니었다. 일제의 식민 침탈 도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 강점 35년 동안 경인선은 그렇게 지나간 어둠의 터널을 오가고 있었다.

1945년 광복은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힘으로 철도사를 쓰는 계기가 되었다. 6·25전쟁 때는 사상 초유의 극심한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2등 객차

전후 피나는 노력으로 1959년 8월 사상 처음 객차 제작에 성공하였다. 경인선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증기기관차~디젤기관차~기동차~전철로 이어지면서 차량이 개선되었다.

1960년대에 복선화, 1970년대에 전철화 사업이 완료돼 대기오염 방지 등에도 크게 기여하였고, 복복선 사업이 마무리되자 경인선은 연간 승하차 인원 1억여 명, 수송 화물 3천만 톤에 이르는 국내 유일의 흑자 노선으로서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침체 일로를 걷기 시작해 지옥철(地獄鐵), 지각철(遲刻鐵)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서울서 부산까지 2시간 18분에 달리는 시대에 정부가 철도 시발지로서의 권리와 철도 발전의 헌신을 잊은 채 인천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는 데 1시간 10분이나 허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로운 세기를 달리기 위해서는 경인선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라는 명성과는 달리 경인선에는 기존의 복복선을 활용한 초특급 운행, 열차 시설의 획기적 개선, 제물포, 동인천역 등 잘못 붙여진 역명의 개정, 문화공간으로서의 역사(驛舍) 운용 개선 등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별난 역사, 별난 물건 시리즈에 게재된 경인선 관련 물건 및 사진은 중구 차이나타운에 있는 〈인천근대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엔 희귀한 근대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료는 성인 2천원, 학생 1천원. 문의 764-1988



## 송 시장, “환해권 광역단체협의회 활성화할 것”

“충남도와 환황해권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송영길 시장은 충남도청에서 개최한 명사특강 강연을 통해 충남과 인천의 서해안권 발전전략을 통해 환황해권 경제 벨트를 조성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송시장은 “충남을 비롯해 인천, 경기, 전북, 전남 등 서해안권 5개 시·도(환황해권시·도협의회)가 손을 잡고 환황해권시대를 열어가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력을 어떻게 확충하는나’를 주제로 진행한 이날 특강에서 송시장은 해법으로 ▲인력문제(출산, 보육, 교육, 고령화 등) ▲ 함께 가야 행복(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고용의 유연안정성, 사회안전망확충) ▲ 정공법(세수증대, 세출조정, 국민연금) ▲남북경협을 통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송 시장은 인천의 추진전략인 ▲사람에 대한 투자 ▲신성장동력산업 확충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조성 ▲인천~개성~해주 삼각 산업벨트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다.  
 특히 송 시장은 충남~인천과의 서해안권 발전전략을 통한 환황해권 경제벨트를 조성, 상생 협력의 방안을 제시했다. 송 시장은 “환황해권시대는 서해안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일이고, 서해고속도로 주변의 인프라와 항만 시설 등을 이용해 중국을 상대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중국어선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 “출산, 육아, 교육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어렵다. 모든 경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며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아서 건널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송 시장은 북한노동력과 동남아, 중국 등 외국의 우수한 두뇌들을 유치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부자들에게 대한 세금 과세 및 투명한 경영을 유도해 노동에 대한 적절한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번 특강은 인천시장과 충남도지사의 교차특강으로, 송시장 특강에 이어 오는 9월 중순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천특강이 예정돼 있다.  
 송 시장은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서도 “동지이자 존경하는 분이고 같은 세대로서 유능한 진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훌륭히 도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의 : 대변인실 440-3065

## 내년부터 둘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

내년부터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한 시민이 출산·입양한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부터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어 내년에는 둘째, 2013년에는 첫째를 포함한 모든 자녀의 출산·입양에 대해 장려금을 줄 계획이다. 둘째 자녀는 200만원, 첫째 자녀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장려금 지급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입양신고한 뒤 60일 이내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 여성가족국 440-2751



## 경인선·수인선 역세권 개발방안 마련

우리는 인천을 지나는 경인선, 수인선 전철 21개 역세권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와 개발을 추진한다.  
 시는 ‘경인·수인선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를 열고 내년 4월까지 정비·개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인선 11곳, 수인선 10곳 등 21개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과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도시관리국 440-4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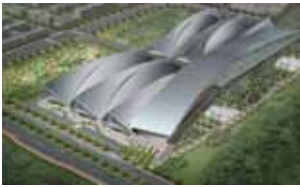


##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순조로운 보상협의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8월 17일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8월 1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1차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을 관련해 이주주택지의 우선공급 및 협의양도자에 대한 위치지정권 부여, 생활대책으로는 협의양도자에 대한 근린생활 시설용지의 우선공급 및 위치지정권 부여,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의 대책을 계획하고 있다.  
 문의 : 인천도시개발공사 260-5571

## 송도컨벤시아 2단계 연말 착공

올 연말부터 인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지난 8월 16일 가진 브리핑에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을 올 연말 착공해 오는 2014년 8월 준공할 계획이다. 2단계 송도컨벤시아가 들어서는 곳은 연수구 송도동 6-1번지 일원 10만2천166㎡며 총 2천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설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541



## 하반기 상수도요금 동결

상수도사업본부는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하반기 상수도요금을 동결한다.  
 우리시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비율은 98.4%로, 전국 평균 82.3%를 크게 웃돌고 있다.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팔당원수 대신 풍납원수의 사용량을 늘리는 등 생산비용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720-2022



##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확대

우리는 정부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인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천지역 대학 재학생 가운데 3년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학생 수가 적은 점을 감안해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한 대학생’으로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이 경우 연간 2천명 가량의 저소득층 대학생이 총 1억7천여 만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  
 문의 : 교육지원담당관실 440-2174

## 영종도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 도로 개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구 운북동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 도로를 이달 15일 개통한다.  
 이 도로는 총 사업비 256억원을 들여 길이 1천228m, 폭 35m 규모로 건설하며 8월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도로가 개통되면 영종하늘도시와 운북복합레저단지를 연결하고 영종도 순환도로의 일부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822



## 웅진군, 서해5도 주민 대피체계 구축

웅진군은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생활안정을 위해 북한의 도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단계별 주민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웅진군은 군 당국으로부터 비상사태 발생 통보를 받으면 섬 안의 방송시설을 가동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단계에 맞는 행동요령을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5도에는 낡고 좁은 기존의 주민대피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국비 530여억원을 들여 현대식 대피소 42개를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섬별로 새로 짓는 대피소 수는 백령도 26개, 연평도 7개, 대·소청도 9개다.  
 올해 말까지 모두 완공되는 대피소는 규모에 따라 대형(660㎡)은 800명, 중형(330~660㎡)은 200~300명, 소형(165~330㎡)은 100~20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다.  
 문의 : 웅진군청 899-3911





### 인천시-AG경기장 시공사 상생협약

우리는 지난 8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을 시공 중인 6개 건설업체와 상생협약을 했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시공사 대표와 임원, 현장소장 등 30여 명과 시청 앞 음식점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는 공정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협약식을 갖고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인천지역 건설업체, 건설자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해 시내에 33개, 부천·고양·성남시 등 8개 인접 도시에 16개 등 총 49개 경기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내 33개 경기장 가운데 10곳은 기존 경기장을 개·보수해 사용하고 나머지 23개 중 16개는 시가, 7개는 민간이 새로 지을 계획이다.

문의 :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440-8911

### 고려대장경 1천년 기념 특별전시

강화역사박물관에서는 오는 10월 2일까지 고려대장경 1천년 기념 특별전시 '대장경, 고려의 혼을 새기다전'이 열린다. 강화군은 초조대장경 판각 1천년과 더불어 팔만대장경이 강화서문 판당에 보관된 지 760년된 해를 맞아 전시를 마련했다. 초조대장경·속장경·팔만대장경 인출본과 대장경 분류 표지패인 경패, 선원사지 출토유물 등 대장경 관련 유물 32점을 전시한다. 관계자는 "고려 최초의 대장경부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까지 고려대장경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전시"라고 말했다.

문의 : 강화역사박물관 934-4296



### 교통·방법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우리는 올해 말까지 시내 곳곳에 설치된 교통·방법CCTV와 경찰 112지령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들여 인천교통정보센터와 인천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관련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인천교통정보센터가 관리하는 교통CCTV와 구군이 운영하는 방법CCTV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력이 더욱 신속하게 투입된다. 시는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인천지방경찰청과 무상대부 협약을 맺고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문의 : 인천교통정보센터 864-6805

### ‘그린카드’ 올해 8천장 발급 목표

우리는 시민을 대상으로 ‘그린카드’를 적극 홍보해 올해 말까지 8천장 이상을 발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출시한 그린카드는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 녹색제품 구입,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하면 정부와 관련 기업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카드다. 시는 2015년까지 인천 인구 270만명의 10% 가입을 목표로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탄소포인트 제도’에 참여한 시내 5만9천가구를 중심으로 카드 발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카드 발급 희망자는 홈페이지(www.greencard.or.kr)에서 카드사별 포인트 적립과 할인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다.

문의 : 환경녹지국 440-5045

###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전자태그 11월 도입

우리는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행 중인 승용차요일제(5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참여 차량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자동차세, 주차요금 감면과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09년 승용차요일제를 도입했지만,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등록 승용차 70만대의 2.7%인 1만8천여 대가 참여하는 데 그쳤다. 시는 전체 등록 차량의 10%인 7만1천대가 요일제에 동참하면 버스, 지하철 수입금이 증가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 등으로 연간 527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의 : 건설교통국 440-3901

### 인천공존초등학교 방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7일(수)에 9월 개교 예정 학교인 인천공존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수용상의 적정성, 시설공사 현황, 통학편의 등을 파악하고,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교육위원들은 “학생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재점검해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국제우호교류 대만 가오슝시의회 방문

인천시의회 대표단은 8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상호교류 관계에 있는 국제우호교류도시 대만 가오슝시의회의 초청을 받아 방문했다. 방문기간 동안 대표단은 대만 가오슝시의회 의장, 가오슝시장 및 대만 체육부 관계자 등 가오슝 향민국 관계기관을 잇달아 방문하고 경제,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의회가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고 우호교류를 지속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세계 6위의 국제 컨테이너 항만인 가오슝항과 인천항과의 지속적인 상생방안 등을 협의하고, 또한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대만 남부지역의 유일한 한국인 학교의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운영이 불가했으나 가오슝의회 천리나 의원님의 노력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 건축 중에 있어 향후 한국인 학교를 통한 국위선양은 물론 문화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학생 의정아카데미 열띤 분위기 속 개최

인천시의회는 차세대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지방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의정아카데미를 열띤 분위기 속에 개최했다.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이유리 학생 등 지방의회 인턴대학생 30여 명이 지난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 의회를 방문해 모의의회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참가 학생들의 실제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로 15명씩 분산 배치해 ‘인천대 국립대학 법인화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2014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재원 마련안’ 등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안건을 갖고 열띤 토론의 장을 연출했다.



### 춘천 산사태 사고 인하대 학생 유족에 성금 전달

인천시의회는 7월 27일 발생한 춘천 산사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인하대 학생 유족과 부상자를 위해 성금을 전달했다. 류수용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지난 7월 17일 오후 십시일반으로 모은 180만원의 성금을 인하대학교에 전달했으며, 이번 모금액은 모든 의원들의 자발적인 모금 활동으로 이뤄졌다. 인천시의회는 앞서 춘천 산사태로 희생된 인하대 학생들의 부상자 후송과 현지치료, 장례 절차 등 유가족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지난달 27일 인하대에 마련된 합동분양소를 찾아 조문한 바 있다. 한편 류 의장과 시의원들은 인하대 성금 전달에 이어 2011 을지연습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시청과 교육청을 방문해 참가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살림규모 합리적 분배에 중점



인천시의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고, 예산의 적절성과 효율적인 사용을 심사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지난 7월 제2기 위원회가 구성됐다. 활동기간은 내년 7월 15일까지다. 제2기 예결위원회의 운영방향은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집중해 시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민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신경을 쓴다는 방안이다. 9월 열리는 제3회 추경을 앞두고 지방세 수입이 약 23% 증가해 연말까지 5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중 군구와 교육청 교부금, 법정교부금 등의 지원금액을 제외하면 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추경 내역을 상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위원회는 결산심사도 꼼꼼히 챙겨볼 생각이다. 시 집행부가 올해 동안 쓴 예산을 각 예산사업별로 평가해 효과가 없거나 연례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는 사업은 중점적으로 심사에 당해 예산사업을 폐지·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예결위의 업무 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내년 본예산 심사다. 위

위원회는 내년 본예산 심사방향을 이월된 부족재원 조달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하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편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즉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이나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식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주는 신규 계속사업비는 예산심사 시 면밀히 검토해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부채가 많아 예산배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한정된 가용재원을 분야별로 균형 배분도 예산안 심사의 포인트다. 위원회는 계속사업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 설치와 도시철도 2호선을 마무리로 인한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SOC사업은 사업시기를 2014년도 이후로 조정하여 추가채무 발생을 최소화하는 예산배정 기본 방침을 갖고 위원회 활동을 벌인다. 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한 경우 사전 해당 상임위원들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에 위원회간 사전조율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원활한 예산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인천시의 한해 살림살이를 책임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를 걸어본다.

인터뷰 \_ 차준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시 재정건전성 회복에 최선”

“인천시의 한해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고, 어디에 어떻게 적절하게 예산을 쓸 것인가를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어깨가 무겁지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간의 상호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안 및 결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제6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차준택 의원(43, 부평제4선거구)은 상임위에서 심사한 것을 근거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율이 필요할 경우 설득과 의견조정으로 합의를 도출할 생각이다. 차 위원장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도시철도2호선 등 시의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은 연차별 재원 계획을 세워야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바로 연결되는 복지예산은 반드시 투입해야 하기에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 대해선 집행부, 상임위, 예결위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는 의지다. 또 불필요한 예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용역비에 대해서도 무조건 삭감이 아닌 실사, 자료수집을 통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 예산을 편성 할 계획이다. 차 위원장은 9월 추경예산과 연말 본예산 심사에 앞서 예결위원들과 워크숍 및 대규모사업 현장을 찾아 현지시찰을 벌일 계획이다. 현지시찰은 예결위에선 처음이다. “시 살림살이에 대해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예결위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시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클릭! 시의원 \_ 신현환 의원



“보건의료 · 시민건강에 힘 모을것”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돕는 일이 너무 신나고 좋아 의정활동을 신명나게 하고 있는 신현환 의원(44, 남구제3선거구). 초선이지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작년 예산안 심사를 잘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 의원은 작년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부담도 컸지만 상임위를 존중하는 대 원칙아래 교육청을 배려하면서 협조를 잘 이끌어낸 것을 제일 큰 성과로 꼽았다. 이러한 노력이 무상급식 실시때에도 교육청과 파트너십을 이뤄내는 구간이 됐다. 신 의원은 시 전반적인 정책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상임위 말고도 각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활동이 다양하고 일이 많으면 힘은 들지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자부심과 기쁨을 느낀다. 신 의원은 약사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다 시의원이 됐기에 시민들의 보건의료, 건강문제에 관심이 많다. 시와 의료분야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정책을 논하는 정책간담회 개최를 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시민건강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책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청소년 정책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각 과에서 흩어져 있는 청소년사업을 교육청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신 의원은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길 희망한다. 그러기에 낮은 자세로 시민에게 귀 기울이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



### 시니어창업교육 무료 수강생 모집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시니어창업에 필요한 기본 지식 습득과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1 제1회 베이비 붐 세대'를 위한 시니어 창업교육'을 개최한다.

○ 교육시간표

날 짜	강의 주제	강사(소속 및 직위)
9월 5일(월)	시니어창업 경영특강	전기보 (행복한은퇴연구소 소장)
9월 6일(화)	창업과 은퇴 이후 재테크	강창훈 (중앙이애플(주) 은퇴경제연구소 대표)
9월 9일(금)	시니어창업 회사설립 실무	강민수 (주)글로벌경영컨설팅 대표)
9월 16일(금)	소상공인 창업의 이해	황수연 (인천남부소상공인센터장)
9월 19일(월)	소셜 마케팅 및 홍보전략	유영진 (VCorea 대표)
9월 20일(화)	사회적기업 창업의 이해	이기현 (한국소호진흥협회 이사)
9월 23일(금)	사업계획서 수립과 작성법	이동기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인천지회장)
9월 26일(월)	창업지원제도 및 활용법	최성영 (한국폴리텍 II 대학 산학협력단장)
9월 27일(화)	지식서비스컨설팅 창업의 이해	양석균 (주)CE경영컨설팅 대표)

- 교육기간 : 9월 5일(월)~27일(화), 14:00~17:00 (주3회 월·화·금 3시간/총 9회)
- 교육장소 :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공동실험실습관 5층 509호
- 교육대상
  - 기업 및 기관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만 40세 이상(변경 가능)으로 직장 퇴직자 및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 교육인원·주관 : 30명 내외(변경 가능)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 수강료 : 무료
- 신청기간 : 8월 19일~9월 2일(금) 12:00
- 신청서류 : 시니어창업교육 수강생 참가신청서 1부
- 신청방법 : e-mail 접수 또는 우편, 팩스접수
- 선정발표일 : 9월 2일(금)
- 문 의 : 835-9642, 9669



### ‘함께 여는 인생 2막’ 참여하세요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산재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인 ‘함께 여는 인생 2막’을 진행한다. 산재근로자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프로그램명 : 함께여는 인생 2막
- 교육기간 : 9월 5일~11월 2일, 오후 2~4시
- 교육내용 : 애니메이션을 통한 성격검사 / 역량강화를 위한 조주기능사(각테일 만들기)과정 / 나에게로 떠나는 스피치 여행 / 문화기행으로 영화관람과 단풍놀이 / 컵케이크 만들기와 우쿨레레 배우기 등
- 교육대상 : 산재근로자면 누구나 가능
- 참 가 비 : 무료
- 문 의 : 833-3051, 070-7124-0271

### 자연을 닮은 자연안내자 양성교육 진행

인천녹색연합에서는 생태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과 '자연안내자 양성교육 제8기 입문과정'을 진행한다. 나무 한 그루, 작은 벌레 한 마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나와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찾기에 나설 분, 내 삶의 초록을 만들어갈 참가자를 기다린다.

- 교육기간 : 10월 6일~11월 17일까지
- 교육시간 : 매주 화·목 오전 10시~12시 30분
- 모집인원 : 참가비 입금 선착순 15명
  - 신청서 서류심사 후 개인별 알림
- 참가자격 : 교육 후 인천녹색연합에서 생태교육 자원 활동 하실 분
- 수료조건 : ①토론발제수업 과제물 제출 ②결석 1회 미만 ③개강식(10/6)필참
- 신청방법 : 인천녹색연합 홈페이지 녹색교육게시판 참가신청서 작성 후 게시판에 댓글
- 신청기간 : 9월 26일(월)까지
- 문 의 : 548-6274, pongdang@greenkorea.org



### AG 서포터즈 문화교육 ‘아시아 문화 맛보기’

인천국제교류센터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참가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포터즈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 맛보기’ 문화교육을 한다. ‘아시아문화 맛보기’ 프로그램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인천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www.icice.or.kr)에서 가능하다.

- 문의 : 451-1773~4
- 9월 서포터즈 문화교육

일 정	장 소	주제 및 강사
6일(화) 오후 4시	인천시청 대회의실	중앙아시아 영화감상 '자밀라' (조미령, 인천국제교류센터 과장)
20일(화)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남아시아 정치·경제 토포기 (김찬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27일(화) 오후 4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아랍상인 신밋드 : 현대 아랍경제 (홍성민, 중동경제연구소 소장)

### 초중고 과정 학생 모집

인천의 대표적인 야학인 인항학교에서 초·중·고과정 학생을 모집한다. 어려운 환경으로 배우지 못한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 교육과정 : 초·중·고등과정 각각 1년 과정
- 모집인원 : 남·녀 00명(연령제한 없음)
- 모집마감 : 9월 30일(선착순 마감)
- 수업시간 : 월요일~금요일(저녁 6시 30분~9시 25분)
- 모집특전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무료
- 전 화 : 772-4061, 팩스 : 772-4062

### 패션으로 만드는 청소년문화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문화축제를 연다.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 일 시 : 9월 17일(토) 오후1:30~4:00
- 장 소 : 송현근린공원 분수광장 일대
- 내 용 : 각기 다른 패션 테마로 체험부스와 패션쇼 진행
  - 공연마당 : 청소년 동아리 공연, 난타 공연
  - 체험마당 : 헌 옷 리폼 등 청소년들만의 문화를 만드는 문화존 구성
  - 전시마당 : 프리마켓, 아이디어 생활용품 전시 등
- 신청방법 : 각 학교 담당선생님 통해 신청 동구청소년수련관 전화, 방문, 메일접수(play-we@hanmail.net)
- 모집분야 : 프리마켓, 리폼, 모델(패션쇼) 등
- 문 의 : 777-7942

### 제29회 제물포 예술제

인천예총은 제29회 제물포 예술제를 연다. 지역예술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예술을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한 지역대표 예술로 역동적인 예술제를 펼쳐보이고, 전시, 야외공연장, 야외광장에서 전시·공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29회 제물포 예술제 “Fly to the Art”
- 행사기간 및 장소
- 전시기간 : 9월 2일~8일(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 공연일시 : 9월 3일~4일(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체험행사 : 9월 3일~4일(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 문의 : 872-7873

### ‘책 나와라, 똑딱’ 북아트 수업

부평기적의도서관에서는 초등 저학년들을 위한 북아트 수업 〈책 나와라, 똑딱〉 참가자를 모집한다.

- 프로그램명 : 북아트 프로그램 〈책 나와라 똑딱〉
- 참가대상 : 초등학교 1~2학년 12명
- 접수일시 : 9월 3일 (토) 09:00~(선착순 방문 접수)
- 수업일시 : 9월 16일~11월 18일, 매주 (금)14:00~15:00
- 참가비 : 무료
- 문 의 : 505-0612~3, www.bpml.or.kr

### 9월 집단 심리검사

인천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청소년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신의 성격, 적성, 능력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대인관계와 합리적 진로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 검사 실시일 : 9월 17일(토) 2:00~ 3:00
- 해석 실시일 : 상담자 배정 후 개별 연락, 일정 논의 후 해석상담 진행
- 장 소 : 인천청소년상담지원센터 4층 교육연수실
- 대 상 : 초등 5년~고3
- 내 용 : – 성격유형검사(MBTI, MMTIC) : 5천원
  - 학습검사(MLST학습전략검사) : 5천원
  - 진로검사(진로발달, 진로탐색검사) : 5천원
-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검사 당일 수급자 증명서 (증명 가능한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 문 의 : 721-2314



### 노동·생활법률 무료상담

한국노총 인천지역 노동교육상담소에서는 노동·생활법률 무료상담 서비스를 한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 노동법 관련 일체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서류 작성 등 법률구조 서비스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 부당해고, 부당노동 행위에 관한 고소, 고발 구제신청 상담
  - 산업재해, 최저임금, 비정규직등에 대한 관련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 일반 민사·형사·가사 등 생활법률 관련 상담 및 무료 서류 작성 등 법률구조 서비스
  - 부동산, 임대차, 채권, 채무, 이혼, 양육, 상속, 교통사고 등
- 시 간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방 법 : 전화, 팩스, 직접 방문 상담가능
- 문 의 : 515-4881, 팩 스 516-4881

### 어린이용 교통안전 동영상 홈페이지 개재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어린이용 교통안전 지도·교육용 동영상·애니메이션 등을 제작 무상 서비스 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 접속해 활용하기 바란다.

- 문의 : 011-9983-1877

### 제4회 맑고 푸른 환경사진 공모전

인천환경공단은 인천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제4회 맑고 푸른 환경사진 공모전'을 연다.

- 작품주제
  - 인천의 하늘, 땅, 바다를 소재로 한 자연환경에 관한 주제
  - 수질·대기·토양 등의 환경오염과 관련 또는 생활환경 사진으로 환경사랑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작품
- 참가자격 : 인천시민 및 인천소재 학교 재학생
- 출품규격 : 11"× 14"인화사진 및 jpg파일제출 (아날로그사진의 경우도 jpg파일로 제출)
  - ※ 해상도는 2,000×3,300이상, 2.5Mbyte 이상이며
- 출품수량 : 1인당 3점 이내(출품료 없음)
- 접수기간 : 9월 1일 ~30일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공모신청서 제출)
  - 우편은 9월 30일 도착분에 한함
- 문 의 : 899-0125

### 가을 문화강좌 '풍성'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가을 문화강좌를 열고 있다. 문화강좌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문 의 : 777-7942

프로그램명	일 시	시 간	대 상	접 수
독서기행 <역사편>	사전수업 - 9월 24일(토) 독서기행 - 10월 8일(토)	추후 공지	초등 3학년 이상	9월 6일~9월 10일 (동구거주자) 9월 14일 ~마감 시 (타구거주자)
꿈을 찾는 아이들 (꿈.찾.아!)	9월 17일~11월 5일	16:00~18:00 (매주토)	초등 5학년~6학년 20명	8월 18일(목) ~선착순 전화, 방문, 메일 접수 가능
2011년 시민교육 스스로, 즐겁게 하는 자기주도학습	10월 12일	10:00~12:00 (수)	진정한 교육을 고민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 갯벌문화관 및 다레원 제3기 수강생 모집

미추홀공원내 갯벌문화관&다레원에서는 2011년 제3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 모집기간 : 9월 22일(목) 오전10시~27일(화) 오후 5시
- 대 상 : 만 18세 이상 성인(개강일 기준)
- 수강료 : 무료
- 모집방법 : 홈페이지 접수
- 교육기간 : 10월 4일~12월 23일, 주1회 2시간씩
- 문의 : 833-2600, 팩스 833-4745

요일	운영시간	강좌명	강사	수강정원
월	오전	생활 다레	조명순	15
		기초 중국어	이영연	15
		이미지 메이킹업(특강)	김유순	20
		동화 구연(특강)	이민정	15
	오후	응용다레와 규방다레	조영아	16
화	오전	도예Ⅱ	이정훈	18
		자전거와 생활(특강)	이영남	20
	오후	대금과 단소	김유호	15
수	오전	서예와사군자	박영래	25
		수지침	이영식	30
		한지 공예	심명숙	25
	오후	천연비누와 천연화장품(특강)	박은정	30
목	오전	디지털 사진촬영	김민환	30
		서예	박성호	25
		한국화	최경숙	15
		도예Ⅰ	장윤성	16

### 계양산 자연치즈 체험장

농촌진흥청과 인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10년도 국비사업으로 체험장 설치하고 자연치즈만들기, 피자만들기, 아이스크림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위치 : 인천 계양구 다남동 103-36
- 문의 : 544-7272

### 화재안전 우수건물 안심하고 이용

한국화재보험협회(KFPA)는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내용 : 화재보험협회가 점검한 특수건물 중에서 화재위험도가 매우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에 대해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패'를 건물에 부착, 이용객들이 해당건물에 이용 시 화재에 대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대상 : 1차로 전국 총 69개 건물(인천지역 : 4개)이 'KFPA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선정됨.
- 혜택 : 이들에게는 KFPA가 실시하는 방재교육비 및 위험관리 정보회원 가입비 할인, KFPA의 기술지원 요청 시 우선 지원, 각종 세미나 우선 초청 등의 혜택을 부여.
- 문의 : 02-3780-0224

### 어르신 소일거리 공동작업장 참여자 모집

송의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 어르신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고자 공동작업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 일 시 : 월~금요일(주 5일) 오전 9시30분~16시30분
- 장 소 : 송의종합사회복지관 2층 공동작업장
- 대 상 : 60세 이상 어르신 4명
- 내 용 : 소일거리 공동작업/월 일정금액의 보수 지급
- 문 의 : 888-6222

### 미래의 녹색성장 리더가 되자

홈플러스가좌점 평생교육스쿨에서는 제 21기 e파란 어린이 그린리더를 모집하고 있다. e파란 그린리더는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3주간의 실내 수업과 도시 숲 현장을 찾아가는 활동이다.

- 일 정 : 10월 9일(일)~23일(일), 오전 11시~1시, 매주 일요일 3주간
- 대 상 : 초등학교 3~6학년(선착순 30명)
- 참가비 : 1천원(유니폼, 교재, 교구 제공, 봉사활동증 발급)
- 장 소 : 가좌점 홈플러스 3층 평생교육스쿨
- 문 의 : 453-8003~4

### 제5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노인일자리 경영 및 노인생산물 전시 등 일하는 노인상 구현을 위해 '제5회 일하는 노인 전국대회'를 연다.

- 일 시 : 9월 21일(수)~22일(목)
- 장 소 : 송도컨벤시아
- 참여규모 : 1만5천명 내외
  - 15개 시·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1천개 기관( 5천명)
  - 인천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46개기관(1만명)
- 주요 추진행사 : 노인생산물 전시, 판매관 / 일자리체험전 시관 / 일자리 홍보관 / 일자리 취업관 등 운영
- 문 의 : 886-1855

### 추석맞이 민속 문화 축제

우리시에서는 추석을 맞아 다양한 민속문화 축제를 연다.

- 일 시 : 9월 13(화) 11:00~19:00
- 장 소 : 인천도호부청사(남구 문학동)
- 주 최 : 인천시
- 주 관 : (사)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보존회
- 행사내용 : 공연행사 / 민속놀이 대회
- 무형문화재 체험 / 전통의상 체험 및 부대행사 등 시민참여 민속놀이 및 추석맞이 노래자랑 신청 접수
- 인천도호부청사 ☎ 422-3492, www.dohobu.org
- 참가하신 분들께 등수에 따라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문 의 : 440-4033

### 당뇨관리 도와드립니다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당뇨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당뇨환자 교육을 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당뇨교실 : 당뇨 영양관리, 당뇨 약물관리와 부작용 등
- 당뇨강사 : 약학박사, 내과전문의, 대학교수, 영양사 등
- 식단체험교육 : 9월 1일(연수구보건소)
  - 예) 나이 75세, 키 173cm, 체중 65kg 경우
  - 일일 2천cal를 섭취해야 한다.

곡류군	저지방	중지방	채소군	지방군
3	2	1.5	4	2

- 교육대상 :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고, 교육비는 무료
- 문 의 : 749-7080



## 인천을 알아가는 재미가 가득!

굿마켓 송도 벼룩시장이 8월 20일 활짝 열렸다. 인천의 명물이 될 굿마켓은 아름다운 문화 활동으로, 자원의 재활용과 나눔으로 시사하는 점이 크다. 송도의 눈부신 노을을 배경으로 OBS 특집공개방송인 '노을콘서트'도 함께 열려 시민들을 즐겁게 했다.

다른 부분은 모두 다섯 곳입니다.



8월호 '다른 그림 찾기'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정답자 가운데 열 분을 추첨해 알립니다.



정효진   계양구 작전동	민소라   남구 학익2동
오중란   계양구 계산4동	강보원   남동구 간석2동
전성득   부천시 원미구	전경옥   서구 왕길동
최연선   시흥시 조남동	박윤경   서울 동대문구
이승준   남구 용현5동	김남주   계양구 작전1동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 다른 그림 찾기에 응모하세요. 인천을 주제로 다른 그림 찾기 문제를 만들어 주는 것도 환영합니다(단, 정답은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사진도 공모합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독자엽서 당첨자** ※ 독자엽서에 참여한 아홉 분을 선정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남궁옥   남동구 만수5동	조선영   부평구 부개3	임채훈   남구 관교동5	강은미   부평구 산곡2동	이광섭   대전시 서구
이호태   부평구 청천동	박성일   부평구 갈산1동	채병철   서구 석남동	이강익   부평구 갈산1동	



김치 찰칵



장원



**유모차 화물차**

"엄마,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를 태운 유모차가 장보기용 화물차로도 사용됩니다. 엄마 왈 "계속 불평하면 너 내려 놓고 라면박스 두 개 싣는다"

— 차지원 남동구 구월동

**우리 엄마**

휴가 때면 친정이 있는 강원도로 향합니다. 이 못난 딸은 늘 동해바다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 사진만 찍었지, 정작 엄마를 찍어드린 적은 없었네요. 수줍게 웃는 걸 보니 엄마도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엄마, 우리 엄마...

— 김연옥 계양구 작전1동



**'피사의 사탑 썰미야', 힘 센 우리아들**

우리아들이 유럽으로 건너 가 피사의 사탑을 밀고 있습니다. 힘이 이렇게 셀 줄 몰랐어요. 혹시 이탈리아에서 피사의 사탑을 원상복귀 해 놓으라고 하면 어찌죠?

— 권경애 부평구 청천2동



**뱀은 내 친구~**

말라이가 동물원으로 소풍을 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뱀이 무서워서 도망쳤지만, 우리 딸은 용감하게 뱀을 목에 두르고 사진까지 한 장 찍었네요. 친구들의 박수도 받았답니다.

— 윤혜원 남구 학익동

**아찔? 어찔!**

월미도 놀이기구의 모습입니다. 허공에 떠있는 다리는 그런대로 편안해 보이는데 그 위의 얼굴들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 김민주 남동구 구월동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문의 ☎ 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와 시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영문사이트), (koreantweeters.com/smartincheon, 한글사이트)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과 퀴즈문 제 작성은 각 3장)을 드립니다.



## 한국문화는 내 삶의 엔돌핀

글 닷타웃 숙 무안반(태국, 외국인 근로자)



나는 태국 근로자로 인천에 온 닷타웃 숙 무안반이다. 2010년 7월 19일 한국에 첫발을 내디뎠고, 인천에 있는 정보산업사에서 일하고 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매우 놀랐다.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의 경제가 인상적이었고 다양한 문화가 흥미로웠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소통의 문제였다. 한국말을 못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일을 못할 뿐 아니라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힘든 그야말로 아무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행히 친구의 도움으로 태국의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고, 일요일에는 인천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궁금한 것도 묻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다. 낯선 한국 땅에서 태국사람을 만나고, 태국어로 말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같다.

지난 7월 10일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의 주최로 ‘태국의 날’ 행사가 열렸다. 기획사와 센터, 태국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함께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았다. 하지만 ‘태국의 날’ 행사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태국의 문화와 결코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은 역사를 한국인에게 소개하는 뿌듯한 자리였고, 많은 태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기는 행복한 자리였다. 태국의 전통춤인 탁신나리를 보고 태국의 노래를 듣고 타이수끼 타이국수를 먹고 즐기다 보니, 내 마음은 태국의 고향에 가 있는 듯 행복에 부풀었다. 더욱이 송영길 시장과 황창배 센터장 그리고 주한 태국 우사나 베르난다 영사, 나루몬 훈섭 노무관이 ‘태국의 날’ 행사를 함께 해주어 진심으로 고맙웠다.

나는 이날 여기저기 흩어져 일하고 있는 친구이자 동포들을 만난 게 기뻐 사진을 많이 찍었다. 나는 태국에 있을 때도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다. 지금도 태국의 몇몇 친구들과 행사가 있거나 여행을 하면 사진기를 제일 먼저 챙긴다. 앞으로도 사진 속에 많은 이야기와 추억을 담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다양한 것을 배우고 추억도 풍성하게 엮어갈 생각이다.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문화를 즐기는 것은 내 삶의 이벤트이자 엔돌핀이다.



## 예술 삼치

삼치가 예술을 만났습니다. 집집마다 개성이 넘치는 간판 때문에 맛도 제각각 아닐까 궁금합니다. 그러나 동인천 삼치골목의 삼치 맛은 모두 같습니다. 한마디로... 맛이 예술입니다.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

